금주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가 점점 힘들어가는 첨단문명의 세대를 살아가지만 바른 교육으로 바른 인성과 영성을 가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명기 6장 6-7a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9월 2일 (토) 제 1648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건강한 인성과 영성 계발되는 학교가 좋다!

바나리서치, 크리스천스쿨 선택한 크리스천부모 대상 설문조사 보도

'백 투 스쿨'

이민 2세들의 90프로가 대학진학 후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는 충격적이지만 그 예방책이나 대안이 아직 충분하게 구비되지 않아 많은 부모들이 위기감을 느낀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립학교 즉 기독교학교를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

일반 학교 즉 공립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임이 틀림없다. 어려서부터 가정, 학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제대로 신앙훈련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됐을 때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부모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헌신적이고 신앙적으로 훌륭한데 자녀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대부분 그냥 자녀들을 위해 기도는 하지만 세상 교육체제에 맡겨버린 결과다. 세상의 흐름을 이겨낼 힘이 우리자녀들에게 저절로 생긴다고 오판한 결과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부모들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어린 자녀들이 일주일에 고작 1시간 주일학교에 보내지는 것으로 어떻게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살 수 있을까?

바나리서치는 '백투스쿨' 시즌을 맞아, '국제기독교학교협회(ACSI)'와 제휴해 미국 부모들이 왜 자녀들을 크리스천 스쿨에 보내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What Parents Look for in Christian Schools). 한마디로, 기독교 교육을 통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견고한 삶의 원리들과 가치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바나가 2015년 11월 크리스천스쿨에 자녀를 보내고 있거나 보내려는 ACSI 소속 학부모 971명과 일반 학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자녀 교육 목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바나는 현재 사립 크리스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부모들과 진학을 고려 중인 부모들에게 학교를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들을 물었다. 5가지 항목들로 제시된 설문 내용 즉 교육의 목적 중 우선순위는 양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크리스천스쿨을 통해 확실한 삶의 원리들과 가치를 습득하는 것이라고 응답됐다(재학생 부모들 69%, 진학 고려하는 부모들 53%).

그러나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룰 수 있는 성취나 사회적 스킬들 즉 "실제적인 삶의 기술들(51%)", "삶에서 기회들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기회(45%)", 그리고 "커리어 성취(38%)" 측면에서, 크리스천스쿨을 선택했다는 응답을 받았다.

반면에, 재학 중인 부모들은 개인적 성취보다는 자녀들이 인성이나 영성 계발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실제로 ACSI 부모들은 단연코 학업이나 경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보다는 아이들의 영성과 신앙이 우선시되기에 크리스천 스쿨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세분하자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65%)",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 지혜 배양(60%),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신실하게(54%)", "리더십 스킬들(52%)" 때문에 자녀들을 보내게 됐다고 응답했다.

한편 크리스천 부모들은 학교가 온전하게 학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토대들로 지탱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1. 안전

안전한 환경이야말로 재학 중인 부모들(98%)이나 고려 중인 부모들(94%)이 크리스천스쿨을 선택하는 가장 핵심적인 토대였다. 물론 왕따 방지나 친환경적 교실이나 강당과 같은 요소들도 안전 영역에 속하지만, "문화적 안전"이 관건이 된다. 즉 학업에서건 삶의 문제이건 의심이 들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서로 배워가며 그리고 소속감과 배려를 배울 수 있는 문화 환경이 조성됐는지를, 부모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로 ACSI 부모들 중 47%는 현재 재학 중인 크리스천스쿨의 안전도에 100점 만점을 주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불과 4%에 미치고 있는 차터 학교들이나 공립학교들에 비하면 월등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3면으로 계속〉

Z세대가 일터로 달려온다!

컨버세이션, 92년 이후 출생 Z세대 부상 보도

1992년 이후에 출생한 Z세대는 완전히 기술 친화적인 환경에서 자라난 첫 세대다. 향후 1년에서 2년 내로 기업들은 인류 역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수명이 계속 늘면서 5개 세대가 나란히 앉아 일하게 되는 것이다. 참전용사 세대(제2차 세계대전 이전 출생), 베이비부머(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 X세대(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후반), 밀레니엄 세대(또는 Y세대, 79년부터 91년),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Z세대(92년 이후)다.

따라서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은 아직은 생소한 Z세대의 특성들과 함께 기성세대가 포용력을 가지고 맞을 것을 보도한다(Should we be worried about Generation Z joining the workforce? Here's why not)

첨단기술에 능숙하고 재정적으로 신중
상호존중이 다양한 세대관리 핵심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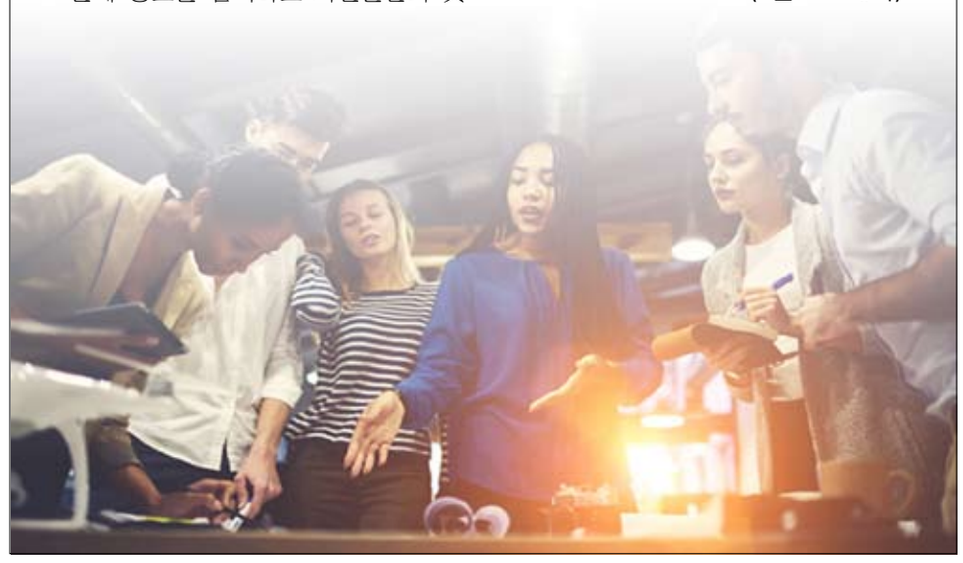
현재 전 세계엔 20억 명 이상의 Z세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아공에선 인구 3분의 1이 21세 이하다. Z세대의 특징을 논하기엔 너무 이를지 모른다. 하지만 대체로 현실주의적이고 가치 중심적이며 기업가적 성향을 지녔고, 재정적으로 신중하며 무한한 호기심을 가졌다고 알려졌다.

Z세대는 완전히 기술 친화적인 환경에서 자라난 첫 세대다. 이들은 모두가 휴대전화나 태블릿PC를 지니고 서로 연결된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났다. 덕분에 정보를 검색하고 자신들만의 것을 고안해내는 데 능숙하다.

Z세대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일자리를 갖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은 것은 일자리 뿐만이 아니다. Z세대가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지표는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아직 그 세대의 특성은 형성 중이며 일자리에서의 역할도 확정되지 않았다.

또 기업들이 밀레니엄 세대가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아직도 분석 중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시 론
김풍운 목사

5면
아는 게 힘이다!
새라김 사모

7면
종교개혁 500주년
조진모 목사

8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13면
선교의 창
송종록 목사

2017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밀알의밤 with 강균성
고백
마 16:16

9월 15일 (금) 7:30pm / ANC온누리교회
anconnuri.com / 10000 Foothill Bl. Lake View Terrace, CA 91342

9월 16일 (토) 7:00pm / 주님의영광교회
gcjc.org /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9월 17일 (일) 7:00pm / 베델한인교회
bkc.org /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특별출연

하경혜
시각장애 찬양사역자

밀알 수어찬양단

특별후원: FOREVER 21 James Worldwide

행사수익금 전액은 2018년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총 **$2,097,000**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 밀알장애인 장학복지기금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수혜대상:
장학생, 근로복지생, 꿈나무장학생

자 격:
장학생: 00명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복지생: 00명
(밀알선교단에서 봉사하는장애인 중 선발)
꿈나무장학생: 00명

장학금액:
장애인장학생 및 근로복지생: 1인당 $3,600
(매월 $300/1년간 지급)
꿈나무장학생: 1인당 $1,000 (일시불)

신청마감:
2017년 11월 30일(목) / 발표: 추후 개별통보

신 청 처:
밀알선교단 장학복지위원회
Tel: 562-229-0001
smilal@milalmission.com

자세한 사항은 밀알선교단 장학복지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milalmission.com

예매처: 핫딜 hotdeal 중앙티켓센터 http://hotdeal.koreadaily.com 213-368-9828 / 213-784-4628
중앙티켓센터 213-784-4628 / 두란노서원 213-382-5400
Joy 기독교서점 213-380-8793 / 복음사 562-865-4949
알라딘서점(올림픽점 213-739-8107, 로데오갤러리아점 213-380-8885, 풀러튼점 714-523-7060, 가든그로브점 714-530-8484)
도르가기독교백화점 714-636-7430 / 울타리서적 310-325-9191 / ANC온누리교회 서점 818-834-7000 / 베델서점 949-854-9191

Ticket Donation: $15
티켓구입 및 문의: 남가주밀알선교단
www.MilalMission.com
562. 229. 0001

시 론

아름다운사람

김풍운 목사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

인간은 모두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화장술과 성형수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다. 너무 지나쳐서 성형수술에 중독이 된 사람도 있다.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에 소개되는 리브가, 한나, 룻, 마리아 모두 아름다운 여성들이었을 것이다. 오늘 필자는 지난번 글에 쓴 나발이라는 불량한 사람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을 나누므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과 함께 성경적인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첫째로 아비가일은 분명 얼굴이 아름다웠을 것이다. 태어나며 받은 모습도 예뻤겠지만 부모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얼굴을 잘 관리하였음이 틀림없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면 얼굴은 그 성전의 문이 아니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얼굴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이는 아주 예쁜데 아름답게 여겨지지 않는가 하면 어떤 분은 얼굴이 잘생기지 않았음에도 아름다워 보인다. 분명 송명희씨의 외모는 예쁘지 않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름답다. 그것은 그분이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과 시간을 많이 보내며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나다나엘 호오손의 작품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 어니스트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바위의 얼굴모습을 닮게 된 것은 그가 늘 그 얼굴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기다렸기 때문이 아닌가? 전문가에 의하면 다정한 부부의 얼굴은 서로 닮는다고 한다. 얼굴근육도 많이 쓰는 곳이 발달하게 되는데 다정한 부부는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므로 자연히 얼굴모습이 닮게 된다는 설명이다. 공감이 간다. 우리가 어떤 얼굴을 받고 태어났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분명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게 될 것이다.

둘째로 아비가일이 아름다운 것은 그 마음이다. 한 때 남진씨가 불러서 유행했던 노래 중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정말 여자지"라는 유행가가 생각난다. 세상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 외모를 아름답게 꾸민 사람 참으로 많지만 마음이 곱지 못하므로 아름답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그런가 하면 분명 잘생기고 젊은 얼굴은 아니지만 볼수록 아름답게 여겨지는 분들도 많다. 필자가 목회하며 아는 그런 분들은 모두 마음이 아름다운 분들이다. "현숙한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잠언31:12)는 말씀에 비추어볼 때 아비가일은 불량하고 미련한 남편 나발에게도 무례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았으니 그녀는 정녕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를 더욱 아름답게 한 것이 그의 마음이다. 정녕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은 돈으로 살수 없는 약이요 화장품이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선한 얼굴은 사람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추천서"라고 말했다. 아름다운 얼굴이 추천장이라면 아름다운 마음은 신용장이라는 말도 있다. 최일도 목사님이 섬기는 나눔의 집에 모 교단의 2명의 목회자와 2명의 형사가 방문하였는데 처음 그곳에 온 자원봉사자가 모 교단에서 나온 목회자들을 모고 "이 분들이 경찰서에서 오신 분들인가요?"라고 물었고 형사들에게는 "이 분들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신가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최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 생각해 보았다고 한다.

셋째로 아비가일은 그의 자세가 아름답다. 미련하고 불량한 남편 때문에 모두 죽을 수 있었던 위기를 모면한 것은 아비가일의 겸손한 자세가 다윗의 노염을 사그라뜨렸기 때문이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자기 가족을 멸하려고 칼을 차고 오던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모습(23절)과 다윗에게 한 말의 내용(24-31절)을 참고해보면 그녀가 참으로 겸손한 자세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내)주라는 표현이 29회, 자신을 여종이라고 부른 표현이 6회 나온다. 그녀의 이처럼 아름다운 자세가 자기 가족들을 살렸고 살인하지 않도록 다윗을 돕게 된 것이다. 나발이 갑자기 죽은 후 다윗의 왕비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심부름 온 사환들 앞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자신이 다윗의 종들의 발을 씻길 종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고 많이 배우고 가진 것이 많아도 자세가 바로 되지 않은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 우리 모두는 대한항공 땅콩 사건을 보며 실물교훈도 받았다. 자신을 종이라 부르고 처신한 아비가일은 왕비가 되었다.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아비가일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내 주라고 부르고 그 발아래 엎드려 섬기자. 예수님을 섬기는 종들의 종으로서 살자. 그래서 아비가일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주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쓰는 자리에 모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란다. 아름다움 얼굴 아름다움 마음 아름다운 자세를 가진 아비가일을 통하여 생각해본다. 나는 과연 아름다운 사람인가?

pwkim529@gmail.com

대안우파 생각을 알면, 해결책이 보인다!

복스, 심리 분석 보고서 토대로 대안우파 프로파일링 시도 보도

지난 달 버지니아 주 샬롯츠빌에 모인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거리낌 없이 나치 문양이 새겨진 옷을 입고 "유대인은 우리를 대체할 수 없다"고 외쳐댔다. 횃불을 들고 반대 시위대를 조롱하고 경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꺼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그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무지와 증오로 가득 찬 한심한 종자들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다만 계속되는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으려면 도대체 이런 생각과 견해가 어떻게 생겨나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렸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최근 심리학자 패트릭 포슈너와 누르 테일리는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대안우파 단체 회원들을 연구해 대안우파 운동의 유인 동기와 회원들의 심리를 분석한 보고서를(A Psychological Profile of the Alt-Right)냈다. 샬롯츠빌 사태의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자, 이들은 아직 동료들의 심사를 거쳐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연구논문 단계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분석한 데이터의 원본도 함께 공개한 저자들은 섣부른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적시하기도 했다.

아직 연구의 완성도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번 연구는 대안우파에 관한 통념을 상당 부분 확인해준다. 세상 물정 모르는 멍청한 백인들이 어딘가에 세뇌당해 저렇게 나온다고 무턱대고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보다는 좀 더 정교하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생각을 굳히게 됐는지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된다.

'복스(Vox)'지에서 보도한 기사(Psychologists surveyed hundreds of alt-right supporters. The results are unsettling)중 핵심 부분만을 요약 게재한다.

인간을 우열 관점으로 보는 생각 차단방법 연구해야
문제 알아도 해결책 세우고 고쳐 나가는 일은 별개

동 보고서의 내용 대부분이 우리가 대안우파에 관해 가진 직관에 부합하는 편이다. 이들은 사회적 위계질서가 있다고 믿으며, 우월한 부류와 열등한 부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우위에 있는 존재는 물론 백인이다. 주류 언론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고,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와 같은 사회 운동을 몹시 혐오한다. 설문조사에서 이들은 "백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명제에 공감하는 정도가 가장 컸다. 이들은 또한 흑인, 무슬림, 여성주의자, 기자 등 자신들과 인종, 민족, 직업,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열등하거나 진화가 덜 된 사람들로 인식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대안우파의 모습과 사뭇 다른 점도 나타났다. 특히 다른 사람을 인간 이하로 여기는 정도, 백인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인식,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 등은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연구의 저자인 아칸소대학교의 포슈너 교수도 지금껏 자신이 연구한 수많은 집단 가운데 이렇게 두드러지는 특징이 나타나는 집단은 흔치 않았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정도다. 한마디로, 이들은 극단적인 편견에 휘둘려 대단히 비뚤어진 견해를 맹신하면서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면서도 부끄럽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은 다른 사람을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 근거는 이번에 실시한 설문들 중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진화했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물음(0점에서 100점으로 표시)에, 대안우파는 백인이 아닌 집단을 유인원에 가깝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슬림은 55.4점, 민주당원은 60.4점, 흑인은 64.7점, 멕시코인은 67.7점, 기자들은 58.6점, 유대인은 73점, 여성주의자들은 57점을 받았다. 설문에 참여한 이들에게 위에 열거한 집단은 어떤 이유에서든 인간 이하나 덜떨어진 인간으로 보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백인 자신들에게는 평균 91.8점이란 높은 점수를 줬다.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해치거나 공격할 때 대상을 얼마나 동류의 인간으로 여기는지가 심리적으로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 상대방이 어차피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면, 그만큼 거리낌 없이 공격할 수 있게 된다. 역사적으로, 인종 청소나 대량 학살 같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기저에는 이러한 인식이 깔려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결과는 더욱 섬뜩하다.

이들은 또한, 특히 흑인을 향한 편견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즉 "나는 흑인과 가급적 만나는 걸 피한다", "대체로 흑인에 부정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내 믿음에 부합한다" 그리고 "나는 흑인과 접촉도 가급적 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등의 설문들에 대안우파는 일반인들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이는 단지 강한 편견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드러내는 데도 거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대안우파가 샬롯츠빌 테러와 같은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는 건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인종 문제인 경우가 많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안우파는 (대조군인 일반인보다) 백인들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했는데, 실제로 이민자를 비롯한 외부인이 끊임없이 미국에 유입돼 자신들이 가꾸어 놓은 삶의 터전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다. 실제로 백인이 피해자이며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는 말은 이론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지당한 말인 동시에 상당히 비현실적인 희망이기도 하다. 문제가 무언지 아무리 잘 알아봤자 해결책을 세우고 실제로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는 일은 엄연히 별개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안우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그런 잘못된 생각의 확산을 막을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포슈너 교수도 이번 연구에 거창한 의의를 두려 하지는 않았다.

〈1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Aviation Management
(General Aviation Management & Flight
Aviation Management & Helicopter Flight,
Flight Dispatcher, Flight Attendant: Cabin Crew)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L, M.Div, MBA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2017년 항공학과 신설
국제 항공기 조종사, 헬기 조종사, 항공 운항사, 객실 승무원 양성
본교에서는 F-1 Visa 와 J-1 Visa 를 발행하며 집중영어교육(항공전문영어), 비행 조종 실습 및 항공사에서 인턴십도 가능합니다.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 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공무원, 교사,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571) 730-4750 / Fax:(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1면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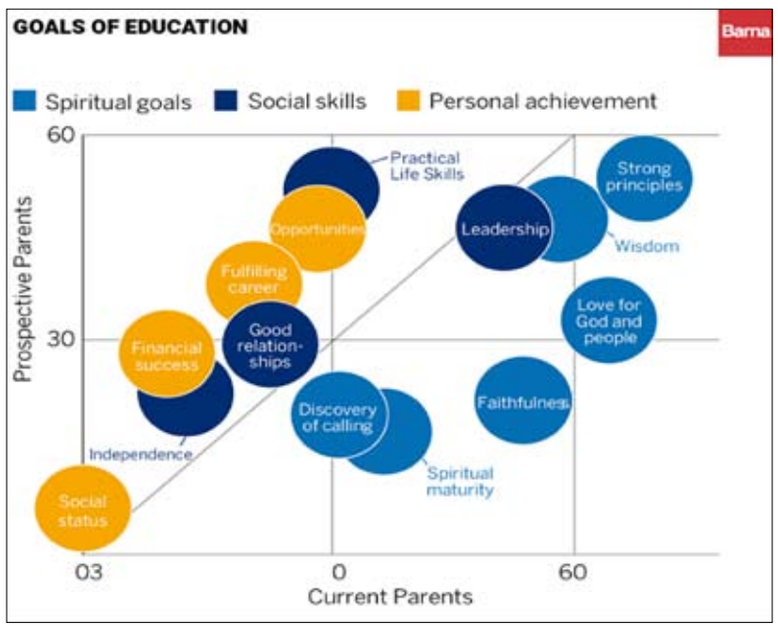
2. 좋은(양질의)) 교사진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은 학교에서 관계 형성들을 통해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나간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또래 집단과 선생님들이다. 부모들은 항상 따뜻하고 자상하며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선생님들을 원한다. 따라서 ACSI 부모들 중 98%는 "자신들의 자녀를 진정으로 돌봐주는 선생님들"을 학교 선택의 차선 요소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91%는 "언제나 상담이 가능한 선생님들"이 크리스천 스쿨에 있다고 응답했다.

부모들은 또한 자녀들이 용이하게 선생님의 관심과 격려를 받기 위해서, 소그룹 사이즈의 학급 배정을 원하고 있었다(63%). 사립 크리스천 스쿨 교사진에 대한 만족도는 59%로, 접근 용이도는 52%에 달한다.

3. 학업 우수성

크리스천 학교들의 학업 우수성



역시 재학 중인 부모들(95%)나 고려 중인 부모들(88%)에게 있어서, 학교 선택의 중요한 원인이었다.

4. 인성 계발과 영성

재학 중이거나(94%) 고려 중인 부모들(73%) 모두 "의도적으로 자녀들의 인성을 계발"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여기에 재학 중인 부모들은 특별히 신앙 영역 즉 자녀들의 영성 계발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었다. 한마디로, 인성과 영성 계발과 성장이야말로 바로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ACSI 부모들은 자녀들 인성계발에 59% 그리고 영성에 66% 정도로 만족도를 표현하고 있어서,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의 만족도를 부여하는 부모들이 97%에 이르고 있었다.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있어, 자녀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건강한 인성과 영성이 계발되고 확장되는 것이다. 기독교학교는 언약의 자녀를 가르치며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학문의 전 영역을 가르치며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일차적 책임을 강조하는 학교이기에, 대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결국 교육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다는 믿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인간 부모나 인간 교사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 의식이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기독교 교육이 제 자리를 잡게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자녀들을 크리스천스쿨에 보낸다!

〈1면에서 계속〉

기존 기업문화와의 융화부터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선호, 각 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까지 일터의 많은 요소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 Z세대가 일터에 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은 대체로 예상 가능하며 저마다 일리가 있는 것들이다. 갈수록 많은 사람이 세대 간에 중요한 차이가 있으며 이들이 상호보완적이므로 서로 배울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나이든 세대의 듣는 기술, 인내심은 일터 안팎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고용컨설팅업체 "로버트 해프"는 각 기업 최고재무책임자들에게 세대별 차이가 어디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가장 많은 30%가 의사소통을 꼽았다. 26%는 변화에 대한 적응, 23%는 기술적인 역량, 14%는 부서 간 협업, 7%는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이 시도했던 세대 격차 해소 방법들로는 세대 간 협업 장려, 멘토링 활성화, 지식 교환(나이든 직원들은 경험을, 젊은 직원들은 첨단기술 정보 제공) 등이 있었다. 관리자들은 직원들이 바뀌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앞장서서 경영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Z세대는 얼마나 많이 다를까? 밀레니엄 세대는 수차례 '스테로이드를 맞은 X세대'로 묘사되곤 했다. 여러 지표들에 따르면 Z세대는 그보다 더할 듯하다. 남아공 건설업체 ALEC의 에마 데이비스 인사부장은 학생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 사실을 어느 정도 경험했다고 말했다. "Z세대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다. 또 모든 것에 대해 질문하라고 교육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한다. 마치 아기들처럼 '왜'라는 질문이 끊이질 않는다."

나이든 세대의 듣는 기술, 인내심, 관용과 겸손함이 일터 안팎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세대 간의 멘토링도 밀레니엄 세대 때보다 한층 더 중요해졌다. 밀레니엄 세대는 일터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보여줬다. 참여와 피드백을 원하고 의견을 말하는 데 거침없는 밀레니엄 세대는 과거보다 포용적인 직장 문화를 형성해왔다. 팀워크는 밀레니엄 세대의 직장 생활에서 중심이 됐다.

이 같은 특징들은 Z세대의 직무능력을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여기에 Z세대의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과 높은 자의식이 결합되면 팀워크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포용력은 Z세대를 관리할 때 필수적인 역량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밀레니엄 세대는 위아래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 내 통합이 평탄하리라는 말은 아니다. 설령 나이 든 직원들이 보다 더 인내심을 갖고 젊은이들로부터 배울 준비가 돼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관계 형성에 대한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의 욕망은 보다 성공적인 멘토링에 도움이 된다. 배우고자 하는 욕구는 이들과 X세대, 베이비부머, 참전용사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젊은이들이 불손하거나 오만하다고 느끼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고정관념은 피해야 한다. 남아공의 기업들은 인종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팀이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대 간의 고정관념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도 방지해야 했다. 서로 간의 사소한 차이에 주목하고 이를 끄집어내는 동시에 유사한 측면은 간과한다면 기업은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세대차는 우리 생각보다 더 작을 수 있다.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밀레니엄 세대는 X세대나 베이비부머 세대와 똑같은 것을 원한다. 도전적이고 의미 있는 업무, 배움의 기회, 능력 개발과 발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공정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처우 등이다.

또 이 3개 세대는 이상적인 리더의 특징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이들을 모두 솔선수범하는 리더, 직원들의 말을 경청하는 리더, 코치이자 멘토 역할을 하는 리더, 직원들의 업무가 조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보여주려 하는 리더를 선호했다. Z세대의 리더상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적인 리더의 특징 목록에 암묵적으로 포함된 것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이다. 직장에선 일상생활과 마찬가지로 상호 존중이 긍정적인 문화 형성의 기본이다. 다양한 세대를 관리할 때도 존중은 핵심 요소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욕구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각 개인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새 인재를 채용하면서도 나이든 인재들을 잘 관리해 축적된 지식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각 세대의 변화가 일터와 마찬가지로 유기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소망 칼럼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처형해 버린 엘리야는 아합왕에게 곧 비가 내릴 것이라 예언하고, 곧바로 산 정상에 올라 간곡한 기도를 드렸다. 이윽고 바다 먼 곳에서부터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거센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인간의 기도에 의하여 천기(天氣)가 변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된다. 야고보의 증언과 같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었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더욱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 바란다.

엘리야는 3년6개월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터라 비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결코 가시적인 현상만 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된다. 엘리야가 그 손바닥만 한 구름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해 버리고 말았다면 그에게는 결코 마른하늘에 엄청 비가 내리는 기적은 체험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다. 그는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칠흑같이 어두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신앙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 바란다.

아브라함도 이 같은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그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었으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일곱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 그가 일곱 번째 기도할 때까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속히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몇 번 기도해보고 징조가 안 나타났다고 불평하고 실망하며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기도하면서 실망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낙망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 어떠한 처지에도 낙망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어떤 위급한 상황과 불가항력의 경우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엘리야가 일곱 번째 기도를 마친 후에 손바닥만 한 구름이 떠올랐다. 그것은 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표시였다. 엘리야가 낙심치 않고 그토록 끈질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응답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한 번만해도 응답하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처럼 응답을 즉각적으로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의 믿음을 검증하고 인내와 소망의 신앙을 다지고 훈련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때로 우리는 심한 좌절감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가 떠나고 그분과의 긴밀한 관계가 단절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지쳐서 기진한 채 잠든 엘리야를 깨워 음식을 먹도록 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말해준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아직까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지라도 낙심 말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바란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보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 반드시 응답을 받고 소원 성취하는 성도들 되기 바란다.

nammicj@hanmail.net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사랑에도 차원이 있지!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너희는 곧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한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사실은 이 친구라는 말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학교생활을 할 때에는 똑 같이 출발했던 가까운 친구였다. 그렇지만 한 20년 지나고 나면 한사람은 출세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한사람은 잘되고 한사람은 잘 못되고 다 그렇다. 다 똑같이 잘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친구는 친군데, 가령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여러 사람에서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내 친구요. 죽마고우요 참 좋은 친구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자기는 낮추고 친구는 높이는 것이 된다. 우정이 깃든 얘기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나 그 무엇으로도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아주 높이 존경받고 추대 받는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보고 '저 애 내 친구야' 그러는 것은 문제가 된다. 생각해보라! 언제 친구였는가? 이런 이야기는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이건 그 친구를 격하시키는 것이고 명예에 누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대할 때는 내 친구라고 할 것이지만 나보다 높은 사람을 향해서 대놓고 '저사람 옛날에 형편없는 친구이었는데'하고 말하는 것은 정말 그에게 민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친구라는 말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 부를 때 '죄 짐 맡은 우리 친구' '예수 내 친구' 하는 거 사실 조금은 거북스럽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더러 친구하는 건 고맙지만 내가 예수보고 당신이 내 친구, 이러는 것은 좀 폐가 되는 것 같다. 버릇없는 찬송 같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친구라는 말하는 순간에 자기는 낮추고 친구는 높이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만 내 친구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친구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지금 최고의 지위로 우대하는 것이다. 높이 대하는 시간이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 밤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하신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일단 제자로 통한다. 예수님은 스승이요 랍비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로부터 배우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모방한다. 그래서 제자와 스승이다. 그런데 오늘은 친구라고 말씀하신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제자들을 당신 자신만큼 동등하게 높이 추대하는 셈이다. 동시에 당신 자신은 아주 낮추어서 그들과 평등한 관계에서 만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좋은 친구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자기 표명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또 설명하면 목자라는 것이다. 특별히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면서 선한 목자라 하신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 그렇다. 선한 목자는 정말로 양을 사랑해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하고 여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이다. 보라, 양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건 동물이요 미물이다. 그러나 친구라는 것은 인격이다. 또 친구는 선택적 사랑이요. 자발적 사랑이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라이벌(Rival)의식을 넘어서는 사랑이다.

사실은 친구 사랑이 힘든 것이다. 동물사랑은 쉽다. 또 불쌍한 사람 사랑하는 것도 쉽다. 그러나 정말로 어려운 것이 친구사랑 하는 것이다. 왜? 그것은 서로 라이벌이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가까운 사람하고 멀고 먼 사람하고 가깝다' 라는 말도 있다. 왜냐하면 먼 사람은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구란 나하고 가깝고 이해관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저가 올라가는 동안 나는 내려가고, 저가 내려가면 내가 올라가고... 이것이 아주 어렵단 말이다. 시소게임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아내도 아내 나름이겠지만 친구가 출세하면 곧 좋지 못한 부인들은 꼭 거기서 말을 한다. '당신 친구는 이렇게 출세를 하는데 당신은 그 친구라면서 이게 뭐요"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라이벌 의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목자가 양을 사랑한다고 해서 누가 질투를 하는가? 시기를 하는가?

친구사랑은 이래서 어려운 것이다. 그런 것이 사람의 심성이라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이라는 말씀, 생각해볼수록 그것은 아주 대단한 사랑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다. 친구를 위하여 마음과 몸을 다 바치는 최고의 사랑이다. 그런데 제자들을 그런 친구로 대하신다니 얼마나 큰 사랑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사랑해주신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차원을 강조하신 말씀이다. 사랑에도 차원이 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높여주는 사랑, 사랑받으려고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랑, 비밀이 없을 만큼 진실한 사랑,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 이런 사랑이 제일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하자!

revpetergang@hotmail.com

푸/른/초/장

이성모 목사
(은평교회)

강한 믿음의 소유자

(시편 66편 1-12절)

시편 66편은 수많은 시험과 어려운 단련 속에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시게 하시는 분을 찬양하며 기도를 들으시는 인자하신 그분께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자의 노래입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과 단련 속에서 다 성숙해지고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만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편 저자처럼 찬양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와서 보라고, 들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당면한 과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화롭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인생의 폭풍은 사람을 주저앉히려 하고 절망에 빠뜨리려 하며 부정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강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신명기 20장 3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 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말며 떨지 말며 겁내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행하신다는 강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당면한 일들, 환경, 조건과 현재 상황만 보면 절망과 낙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험과 환란, 역경, 핍박, 부정적인 면에서 다 건져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강한 신뢰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 불구덩이에 넣어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능력 있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 주님의 도구로 만드시는 거룩한 훈련의 단계임을 믿고 기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6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초월적이시며 존엄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도우시고 행하십니다.

눈앞의 보이는 상황과 내 지혜와 명철만 의지하고 경험으론 이 어두운 세상의 길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지금도 홍해와 요단강에 길을 내신 분이 여러분에게 선한 길을, 시온의 대로를, 황금 기회의 문을 여십니다.

셋째, 물과 불의 시험, 역경 ,환난, 고통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우리 대장되신 예수님이 이겨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이겨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거역하지 말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과 겸손, 온유와 순종, 성결의 삶이 불과 불을 통과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길을 완전케 하시며 높은 곳에 세우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그의 관대하심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풍부함에 들이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만민들아 송축하고 송축하라고 하며 송축하는 소리를 들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소리를 발하라고 하십니다.

한 번도 진 일이 없으신 불패의 하나님이, 한번도 실수가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나아가는 길과 행하는 모든 일, 모든 사역 모든 식구들에게 승리를 꽃아 주십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감사 찬송하시길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7 가을 학기 강의 안내

Sept 18-22(9월 18-22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Sept 25-29 (9월 25-29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On Online Courses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9 - Dec 1(10월 9일-12월 1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Oct 30-Nov 3(10월 30일-11월 3일)
DI Cross-Cultural Teaching and Learn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Chicago, IL
Oct 23-27(10월 23-27일)
PM 8061 Pastoral Counseling(목회상담)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jik Lee(이관직박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십대들의 수업이 편향된 정치적 내용으로 희생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바로 2주 전에, 북가주에서는 가장 탑(TOP) 학군중 하나로 알려진 팔로알토 지역에 있는 건 고등학교(Gunn Highschool)에서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졸업을 앞둔 한 학생이 겨우 17세의 나이에 세상을 이별한 것입니다.

알렉스(가명)라는 학생이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자유진보주의 정치적 수업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며, 좀 더 밸런스 잡힌 수업을 듣고 싶다고 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현 미정부에 대한 선생님의 극단적인 가르침에 질문과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2017년 여름방학 전까지 같은 클래스의 몇몇 학생들과 특별히 선생님들한테 계속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를 당한 나머지 결국은 목숨까지 끊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를 아는 주위학생들에 의하면, 알렉스는 올해 가을 첫 수업에 몇번 나갔다가 같은 반 학생들을 비롯하여 선생님의 왕따(bully)에 무척 힘들어했었다고 전합니다.

알렉스는 본래 기독교 집안의 학생으로서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가정에서 자랐는데, 얼마전 캔사스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 와서 건하이스쿨에 전학을 했는데, 다행히도 자신과 같은 보수적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을 몇몇 만날 수는 있었지만, 지난해 2016년 선거가 있었을 때부터 이번 여름방학 전까지 수업시간마다 선생님에게 심히 창피한 괴롭힘을 당하고 학생들에게도 왕따를 당한 것이 알렉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트라마가 된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학생의 자살사건에 대한 학교의 처사입니다.

학생의 자살 사건에 대해서 건하이스쿨 학생 저널리스트가(Journalist)가 적은 내용을 아침까지는 학생들이 보았다고 했는데, 같은 날 오후에 그 사건에 대한 모든 뉴스들은 온데 간데 사라지고, 며칠 후에 나온 뉴스는 오로지 건하이스쿨에서 일어난 학우 자살(peer suicide) 사건으로 인해서 "심리상담, 심리치료"나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도와주겠다는 일반적인 뉴스만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업시간에 정치적 의견의 충돌로 일어난 학생 자살사건에 대해 학생들이 읽었다는 뉴스들이 반나절 만에 온데 간데 학교 사이트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학교는 무엇을 숨기려는 걸까요?

그래서 건하이스쿨 학생들을 통해 이번 사건과 조금이라도 연결된 다른 뉴스들이 있는지 찾아본 결과 2016년 대선 때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지지했다는 이유로 왕따 당하

고 괴롭힘 당했던 학생들의 이야기들을 양심껏 적어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팔로 알토도시가 매우 자유주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 하이스쿨학생들은 아마도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보다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을 지지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학교 캠퍼스에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학생들도 있다. 11학년인 알렉스 터너의 경우 트럼프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방식이 신선하다고 한다. 알렉스는 "대선 논쟁을 통해 나는 트럼프가 내가 알고 싶었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잘 설명하는 것을 보았다. 트럼프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사람들이 왜 그의 성격에 큰 문제를 삼는지 이해를 못한다…. 나는 그를 인종 차별 주의자(racist)로 보지 않는다.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는 그가 미국이 현재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잘 이해하고 제기하는 것으로 본다."

졸업반인 맥킨리(McKinley Kalar)는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이유 하나로 학교만 오면 많은 편견과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나는 교사들로부터 많은 비평을 받고 있으며,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또래 아이들이 나에게 정면으로 대놓고 조롱하며, 나에게 멍청이라고 마구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하지만, 난 상관 안한다. 오히려 내가 슬픈 것은 이런 왕따당함으로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내 또래들이 얼마나 많이 자신의 견해에 대해 말을 못하고 있을지, 그것이 속상하다. 힐러리나 샌더스를 지지한다는 아이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나에게 나누지도 못하면서 내 얘기도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아이들은 확실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트럼프지지자들을 '몰상식한 인간' 취급을 하고 미워하며 경멸한다는 것이 나는 매우 납득이 안된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학생)들이 폐쇄되는 것을 선생님들과 학교가 허락하는 것은 솔직히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11학년인 미쉘(Mitchell Mertz)은 자신은 "개인의 성격보다는 나라 정책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하고 "도널드 트럼프의 성격을 좋아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인데, 트럼프의 정책이 힐러리 정책보다 훨씬 좋다"라고 얘기했다.

10학년인 사라(Sara Michaelian)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트럼프가 나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었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힐러리나 샌더스보다 진정한 미국 정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미국을 더 미국답데 만드는데 최선을 할 사람이라고 믿는다. 그는 매우 애국심이 많고 나도 애국심이 많다. 나는 아직 어리지만, 심히 걱정되는 것이 사람들이 요즘은 민주주의 시민투표를 원하지도 않고 미국 국기까지도 거리에서 태우고 있기에, 도널드 트럼프처럼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의 가치관을 되찾을 대통령이 우린 필요하다."

말츠라는 학생은 말하길 "나는 트럼프를 대통령 후보로 정말 좋아하지 않지만 힐러리보다는 트럼프를 더 지지한다. 힐러리의 건강정책과 개방된 국가경계와 시리아 난민을 포함하는 정책을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에 대한 더 많은 규제가 있어야하며, 도널드 트럼프는 그것에 대해 훌륭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결론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겁내지 않고 이야기 한 학생들은, 이 학생들이 이미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 했듯이 많은 왕따와 심지어는 선생님들의 미움을 사서 어렵게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지내는 학생들이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 트럼프 지지자라는 이유로 선생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 괴롭힘에 못 이겨 자살까지 한 17세의 학생도 있는데, 이런 일로 자살한 학생의 경우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에 우리가 고민하며 함께 기도해야할 일입니다.

학교 측은 모든 것을 주로 정신이슈로만 몰고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깨어 분별하며 소중한 생명들을 엄마뱃속에서부터 십대 그리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솔선수범해야겠습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초등학교 때 이곳에 와서 정치학을 공부한 1.5세에 가까운 청년으로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치로 뛰어들고자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정치는 비 신앙적이고 마귀적인 거짓과 욕심과 권모술수가 많아 기독교인은 이런 세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선한 정치가가 되고 싶은 데요....
-팔로스 버디스에서 Sam Yoo

A: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물과 사건과 역사는 보는 관점(Perspect)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미국 아주사퍼시픽 대학의 영성 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Richard Foster)는 "돈과 섹스와 권력(Money & sex & power)"이란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 책은 돈과 섹스와 권력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잘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 돈과 섹스와 권력이 오용되고 남용되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례들과, 돈과 섹스와 권력이 사람에게 지배되어 잘 선용되는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수도원 운동가들은 가난과 정절과 복종에의 서약을 통해 돈과 섹스와 권력의 배후에 있는 탐욕과 육욕과 오만이라는 악마들의 정체를 드러내어 그 음모를 폭로하고 그 세력을 무력화 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청교도 운동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근면과 성실과 질서에의 서약을 통해 사업과 결혼과 정치의 영역에서 세속적이라 여겨졌던 것들을 성스러운 영역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국가에게 대리적 권한 위임...선한 정치가 필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돈에 관하여 창조적이고 대담하게 응답하는 새로운 서약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불건전한 금욕주의와 맹목적인 부를 추구하는 현대적 광기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고, 돈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도록 합니다.

성에 관하여도 우리는 솔직하고도 정열적으로 응답하는 서약이 필요합니다. 난잡한 성생활을 조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른 성생활을 긍정합니다. 우리는 독신생활을 장려하지 않고, 결혼과 가정생활에 정성을 쏟습니다.

권력에 관하여도 우리는 창조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서약이 필요합니다. 권력의 어두운 면을 탐닉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좋은 면을 선용하며, 권위와 복종이 균형 잡힌 지도력으로 봉사합니다. 국가와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프란시스 쉐퍼는 로마서 13장 1-4절을 근거로 하나님은 국가에게 대리적 권한을 위임했으며 국가는 정의의 대행기관으로 행악자를 처벌함으로서 악을 억제하고 사회 안에 선한 자를 보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선한 정치가를 사용하십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동성애, 낙태, 동성결혼 등 모든 인본주의적인 정책과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펴서 기독교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현 트럼프 대통령은 성경에 입각해서 목회자들의 기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신앙으로 미국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신앙인 정치인들을 주변에 장관으로 많이 세웠습니다. 현 미국 부통령도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신앙으로 잘 돕고 있습니다. 믿음과 실력을 키워 장차 정치계와 이 미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이사야 6장처럼 거룩한 씨가 되십시오.

토론토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섬기며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빌라델비아 장로교회가 1981년 2월 창립 이래 36년간 시무해 오신 김경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본 교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KAPC) 캐나다 노회 소속으로, 개혁적 정통 보수신앙의 신학적 전통을 기반으로 「말씀을 바로 세우고 기도에 전념하며 선교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의 비전 아래, 영적 부흥과 새 세대를 세워 나가는 투철한 소명의식과 이민 목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하고자 합니다.

● 자격요건
1. 현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소속 목사
   또는 교단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개혁교단 소속 목사
2. 정규 신학대학원(M. Div) 이상 졸업자로, 목사 안수 후 5년 이상 목회경력이 있으신 분
3. 만 40~55세(기혼)되신 분
3. 한국어 외에 영어 소통이 원활한 분.
4. 캐나다 또는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혹은 영주권 취득 가능한 합법체류자.

● 제출서류
1. 이력서(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 및 가족사진 첨부)
2. 자기소개서 (신앙 간증 및 목회소명과 목사안수 후 목회경험 등 포함).
3. 목회계획서 (목회철학, 비전과 계획, 레터용지 3매 이내).
4. 목사 안수 증명서 1부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M. Div) 및 학위증명서 1부
6. 현재 소속 교단 확인서 및 증명할 사본 1부
7.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동영상(설교문 포함) 2편
8. 추천서(봉인) 2부(목회자 1인 및 평신도 1인).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청빙여부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 제출기한 및 방법
서류제출 마감일: 2017년 10월31일(화)
제출처(등기우편 혹은 e-Mail 접수).
Attn to 빌라델비아 청빙위원회(Joint Nominating Committee)
Korean Philadelphia Presbyterian Church
8 Codeco Court, North York, ON M3A 1A2 CANADA
이메일: billjangtoronto@gmail.com
문의처: 청빙위원장 장영일 목사 (416)554-7495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아프가니스탄의 브라후이족(Brahui)

아프가니스탄의 25만 브라후이족은 레지스탄(Registan) 혹은 "모래의 땅"이라고 알려진 지역에 거주한다. 이 지역은 남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국경 근처에 놓여 있으며 브라후이족의 주된 집단이 여기에 거주한다.

브라후이는 29개 부족의 연합체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언어의 차이로 인해 이들의 이웃인 푸쉬툰족, 발루치족과 구별된다. 푸쉬툰족과 발루치족은 인도-이란계 언어를 사용하지만 브라후이족은 드라비다어(Dravidian)를 사용한다. 이것은 언어학자들에게 일종의 수수께끼로 여겨지는데 이유는 드라비다어를 사용하는 부족들은 대부분 1000마일 이상 떨어진 남부 인도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브라후이족은 1600년대에 힌두왕으로부터 권좌를 빼앗았을 때 처음으로 권력을 잡았다. 1700년대 나시르 칸(Nasir Khan)의 지배 아래에서 이 연합체는 절정에 이르렀다. 29개의 부족들은 칼랏의 부라후이족(the Brahui of Kalat)에게 연합하면서 충성했다. 이중 8개의 부족들로 이뤄진 한 그룹이 진짜 브라후이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들은 전체 부라후이족 인구의 십분의 일을 조금 넘는다.

삶의 모습

브라후이족에게는 복수의 법 이외에는 법이 없다고 하며 강한 사막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나운 부족으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의 열악함으로 이들의 저항력은 점차 커져갔다.

브라후이족은 주로 유목생활을 하며 그들의 가축 떼를 위한 물과 목초지를 따라 이곳저곳으로 이동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들은 45마일 이상 떨어진 우물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이동한다. 많은 이들은 또한 목초지를 찾아서 이란으로 이주했다.

고산지에서의 겨울은 얼음이 얼고 춥다. 그런 계절에 부라후이족은 평야에서 산다. 이들은 2-3월에 새끼 양들이 태어난 후에만 산지로 간다.

부라후이족은 자발적으로 그들 자신을 "칼크(khalks)"라고 불리는 협동모임으로 조직했다. 각 "칼크"는 그들의 가축 떼를 한 무리로 합하고 전문적으로 상주하는 목자의 보호 아래 둔다. "칼크"는 부라후이족의 경제에 매우 유익하다. 상주하는 목자로 하여금 약 500마리의 양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마을 남자들과 성인이 된 자식들은 마을의 농장에서 일해 밀을 얻게 되고 또 그것들을 시장에 내다팔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또한 다른 캠프와 가축 떼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다른 부라후이족들과 자유롭게 교환한다.

부라후이족은 칼크(khalks)라고 부르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전문적인 목자가 됐다. 이들은 한꺼번에 양을 칠 수 있는 최대 숫자를 알게 됐다. 이들은 또한 양들이 작은 그룹으로 있을 때는 별로 행복해하지 않으며 이런 조건에서는 흩어져서 방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무리가 500마리 이상이 되면 칼크를 나눠서 분가시키고 새로운 "칼크"를 형성하게 된다.

브라후이족의 결혼은 가족 간에 중매로 이뤄진다. 친척간, 특별히 한 남자와 그의 아버지 형제의 딸과의 결혼이 선호된다. 그 커플의 바램도 고려된다. 한 남자가 여러 부인을 갖는 것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지출부담으로 인해 실제적으로는 제한적이다. 이혼은 브라후이족에게서는 거의 드물다. 이상적인 가족은 결혼한 아들들과 함께 사는 그들의 부모로 이뤄진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형제들은 장남의 지도 아래에서 하나의 가족재산을 함께 소유하며 살아간다.

브라후이족의 가장 기초적인 정치적 단위는 부족이다. 한 부족의 구성원은 부자승계를 통해 그리고 정치적인 연합으로 결탁돼있다.

신앙

실제로 모든 부라후이족들은 수니파 무슬림들이다. 아프가니스탄의 다른 사람들처럼 이들은 이슬람 신앙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 이들은 이슬람의 다섯 가지 의무 즉 기도, 금식,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선과 "알라는 유일한 신이고 모하메드는 그의 선지자이다"라고 하는 고백, 메카로의 순례를 고수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부라후이족들 사이에서 일하는 사역단체가 없다. 또한 브라후이의 언어로 된 기독교 자료가 매우 적다.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브라후이족의 거친 유목민적 삶의 스타일에 기꺼이 순응하고자 하는 일꾼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칠레 대통령,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의회로

중남미에서 보수색채가 강한 칠레에서 28일 모든 동성결혼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로 이관됐다.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은 이날 수도 산티아고에 있는 라 모네다 대통령궁에서 "우리는 단지 커플이 되려는 사람들의 성 때문에 본질적인 권리를 부정하고 사랑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이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동성결혼을 완전 합법화하는 법안을 의회로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칠레 의회는 4년간의 치열한 논쟁을 거쳐 2015년에 동성 간 '시민결합(civil union)'을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시민결합'은 모든 형태의 부부 관계를 인정하고 자녀 입양과 유산 상속 등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가정을 꾸린 기존 동성커플의 관계만을 인정하는 제한적인 법안이었다.

이에 따라 바첼레트 대통령은 지난 3월 연내에 완전하게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로 보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남미에서 가장 보수적인 문화 전통이 강한 칠레에서는 지난 1999년까지만 해도 동성애를 범죄로 처벌했다. 이번 조치는 가톨릭 신도가 많은 중남미에서 갈수록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느는 추세와 무관치 않다.

최근 수년 사이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브라질, 우루과이, 멕시코에서 보수 진영과 가톨릭 교계의 반대에도 동성 결혼이 허용됐다. 에콰도르에서는 2014년 9월 처음으로 동성 커플도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

그러나 칠레에서 완전하게 동성 결혼이 허용될지는 미지수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터라 바첼레트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위해 의회를 독려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

집권 연정 내에서도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세력 간에 이견을 보이는 데다 연정에 참여하는 의원 중 상당수가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점도 법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다른 요소다.

중국, '종교자유 억압' 미국 지적에 발끈

중국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미국정부의 보고서에 대해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가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관영 언론은 상당수 중국인이 종교에 혐오감을 갖고 있다며 미국의 평가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23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2016년판 '미국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종교를 통제하고 활동가들과 개인의 종교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무부 보고서는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종교인들의 활동을 국가나 공산당의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로 인식해 이처럼 대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최근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보고서가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의 종교 상황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문제의 보고서가 중국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상에서 반발을 불러왔다며 중국 누리꾼 대다수는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서는 '아자오샤오메이뉘(阿嬌小美女)'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이 "중국에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글을 남기자 373개의 '좋아요'가 달렸다.

신문은 누리꾼들의 발언이 최소한 중국의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 늘어나는 종교에 대한 반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무신론적 이념을 표방하면서 종교 교육이 없는 중국 청년들이 얼마나 종교에 대해 무지한지를 보여준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곁들였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무신론이며 집권 공산당도 종교적 실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비록 학계 일각에서 중국이 현재 종교적 부흥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고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종교적인 국가로 평가됐다.

당시 갤럽조사에서는 중국인 중 61%는 무신론자로 홍콩(34%), 일본(31%) 등 주변지역보다 무신론자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미국 퓨 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전 세계 40개국 사람에게 신(神)이 도덕적으로 필수적인지를 물었을 때 중국인 중 14%만이 동의한다고 답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코란 불태운 파키스탄 기독인 소년 사형 위기

파키스탄에서 18세 기독교인 소년이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불태웠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 몰려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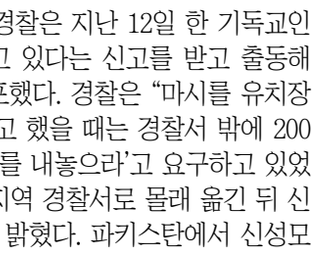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파키스탄 동부 펀자브 지역에 사는 아시프 마시가 신성모독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20일 보도했다. 신성모독은 파키스탄처럼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에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한 기독교인 소년이 코란을 불태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행범으로 마시를 체포했다. 경찰은 "마시를 유치장으로 끌고 와 취조하려고 했을 때는 경찰서 밖에 200여명의 군중이 모여 '그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었다"며 "용의자를 다른 지역 경찰서로 몰래 옮긴 뒤 신문해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은 분노한 군중의 집단 폭행 등 극단적 폭력사태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2014년 11월에는 펀자브 지역에서 코란을 태웠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이유만으로 마을사람들이 한 부부의 집으로 몰려가 밖으로 끌어낸 뒤 고문을 하고 가마에 집어넣어 불태워 죽인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사건에 최소 450여명이 관련돼 있다며 48명을 구속했다.

마시는 코란을 훼손하는 신성모독을 저지르면 사형에 처한다는 현지법에 따라 기소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신성모독으로 처형될 위기에 처한 사례는 마시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펀자브 지역의 한 법원에서는 페이스북에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부인들과 다른 이슬람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비이슬람 신자를 대상으로 한 이슬람 국가의 과도한 억압이 지속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파키스탄 지부는 지난해 12월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은 명확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도 "적어도 기독교는 어떤 교파도 배교자라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며 "이슬람은 현재 세상의 주요한 악이며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바르셀로나 테러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폭발이 목표"



지난 17일 발생한 스페인 연쇄 차량테러가 당초 계획보다 훨씬 축소됐으며 테러범들이 사그라다 파밀리아(성가족 성당) 같은 세계적인 명소에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 원래 목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테러 용의자 모하메드 훌리 셰말(21)은 마드리드 대테러법원에서 22일 열린 심리에서 "최소 2개월 전부터 테러 계획을 알고 있었다"면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등에서 더 큰 테러를 계획했으나 전날 바르셀로나 남부 알카나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애초보다 계획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폭발이 난 알카나르 주택에서 폭탄을 제조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환자복을 입고 법정에 선 셰말은 알카나르 폭발 사고 당시 팔을 다쳐 붕대를 감고 있었다.

대테러법원에는 모두 4명의 테러 용의자가 나와 증언했다. 그중 드리스 오우카비르(28)는 테러에 쓰인 차량을 대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처음 조사받을 당시 동생 모우사(17·사망)가 자신의 신분증을 도용해 차량을 빌렸다고 진술했으나 이날 말을 바꿨다.

법원 관계자는 알카나르 폭발 사고 당시 숨진 이슬람 성직자 압델바키 에스 사티가 총 12명으로 구성된 조직의 이념적 지도자였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증언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모두 사망했다.

스페인 당국은 테러범들이 유럽 내 다른 국가에 있는 조직과 연계됐을 가능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에스 사티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벨기에 브뤼셀 북부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제라르 콜롱 프랑스 내무장관은 "스페인 테러범들이 이달 초 파리에 왔다가 빠르게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서 지난 21일 정신질환자가 차량을 몰고 돌진해 시민을 숨지게 한 일이 발생하면서 프랑스에선 극단주의 테러조직이나 자생적 테러리스트 외에 정신질환자들의 모방 테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의 테러 위험인물 목록인 '파일 S' 등재자 1만7400명 중 3분의 1이 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콜롱 장관은 "경찰과 정신의학자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여행금지' 발효 코앞…남아있는 미국인 200명

9월 1일부터 미국인의 북한 여행이 금지되는 가운데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는 미국인들이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 체류 중인 미국인은 200여명에 달하며 주로 원조,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 정부는 인도적 목적의 활동가 등에는 예외적으로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방북 허가를 얻어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24일 보도에서 북한에 남아있는 미국인의 삶을 조명했다. 북에 체류하는 미국인은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서 사회기업 지원 및 인도적 활동을 하는 50여명, 북한 유일의 국제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의 교직원과 교수진 70여명 등이다. 이밖에 유진벨 재단, 유니세프, 월드비전 등과 같이 의료, 식량 원조를 제공하는 NGO(비정부기구)나 국제기구 등이 있다.

이들은 간접적으로 북한 정권 유지를 돕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북한과 외부세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반론도 있다.

빌 리처드슨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들은 북한 주민들을 세심하게 보살피며 매우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며 "북한과 외교·무역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인도적 접촉은 관계 개선을 위한 가교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미국인이 북한에서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모든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승인하고, 북한에 체류 중인 미국인에게 조치가 발효되는 9월 1일 이전에 북한을 떠나도록 했다.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웜비어는 작년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 6월 13일 전격 석방돼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사망했다. 웜비어를 포함해 북한에 구금됐던 미국인은 최소 17명으로, 아직도 3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

국무부는 언론인이나 인도주의적 목적의 방문, 국익 관련 목적 등의 경우에는 특별여권을 통해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허용 기준은 알려지지 않았다.

20년간 북한에서 원조활동을 했던 글로벌 원조 재단의 프랭클린 그레이엄은 "국가 안보에 대한 국무부의 우려를 존중한다"면서도 "철수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우려했다.

일단 9월 초 새 학기를 시작할 예정인 평양과기대는 미국인을 제외한 교수진만 남기로 했다. 미국인 교직원은 8월 말까지 모두 귀국할 예정이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들의 활동은) 미국에는 정치적으로 유익하다"며 "고립된 세계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고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리케인 '하비'에 텍사스 피해 속출

최대 풍속 시속 210㎞의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Harvey)'가 상륙한 텍사스 주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망자만 최소 5명으로 집계됐고, 이재민도 45만 명에 이른다고 미 연방재난관리청이 28일 밝혔다. 하비가 열대성 폭풍으로 등급이 낮아졌지만 앞으로 며칠간 비를 뿌릴 것으로 보여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멕시코만 일대 정유시설이 멈추면서 국제 휘발유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AP통신 등 현지 언론은 27일 하비가 사흘째 텍사스 주에 비를 뿌리면서 일부 지역은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48시간 동안 강수량이 760㎜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립기상청과 국립허리케인센터는 다음 달 1일까지 텍사스 연안과 루이지애나 주 남서부에 380-630㎜의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역시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 피해를 당한 루이지애나 주에도 28일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미국 네 번째 대도시이자 인구 630만 명의 휴스턴은 강까지 범람하면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다. 두 곳의 공항은 폐쇄됐고 주요 도로 역시 차량 통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또 전신주 붕괴와 전력선 단절 등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돼 텍사스 전역에서 수십만 가구가 불편을 겪고 있다.

하비는 4등급 허리케인으로 2005년 1200명의 사망자를 낸 3등급 허리케인 카트리나보다 강력하다. 미국 본토에 4등급 허리케인이 강타한 것은 13년 만이다. 특히 텍사스 주는 1961년 허리케인 칼라가 상륙한 이후 56년 만에 4등급 허리케인을 맞아 재난적 상황에 빠졌다.

카트리나의 악몽을 기억하는 정부 당국은 전방위적 구조활동에 나섰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구조작업을 위해 3000여명의 군병력을 투입했으며 28일 1000명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가 27일 오전 뉴욕소방국(FDNY)·뉴욕경찰국(NYPD) 소속 특급대원 120명을 일컫는 일명 '뉴욕 태스크포스 원'을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급파하는 등 미국 전역에서 구조대가 텍사스주로 파견됐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응급구조대를 조직해 주민 구조에 나서고 있다.

하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발생한 재난이라는 점에서 그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NN방송은 샬러츠빌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 쏟아지는 비판적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텍사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폭우로 피해지역이 확대되면서 당국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대피 명령을 조금 더 일찍 내렸어야 했다며 부실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실베스터 터너 휴스턴시장은 "대피 명령을 내렸다면 230만명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나오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멕시코만 연안에 집중된 정유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휘발유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멕시코만은 미국 전체 원유 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정제 능력은 하루 700만 배럴에 달한다. CNN은 "멕시코만의 정제시설 30여곳 가운데 10개가 폐쇄됐다"고 전했다.

종교개혁 500주년 - 무엇에 관심을 기울일까? (16)

-루터의 성경적 종교개혁과 이민교회(2)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성경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신이 개혁의 불씨 돼
하이델베르크, 아우스부르크, 라이프찌히 논쟁 등이 종교개혁에 도움

한인들 이민 와 교회출석...성경 기준보다 자신의 판단 더 소중히 여겨
행동 동반 안되는 복음 증거와 내용 없는 열정은 어떤 힘도 발휘 못해

스타우피츠는 루터의 신앙적 갈등을 분명하게 이해하였다. 루터의 고해성사 신부로서 그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스타우피츠는 루터의 순수한 마음을 잘 이해하고 '영적 고통'을 이겨내고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다. 어거스틴의 글을 읽도록 권장하였다. 또한 1510년에는 루터를 로마로 순례를 보내기도 하였다. 나아가서 더욱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깊이 연구할 것을 권한 것이다.

루터의 '영적 고통'은 그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서 있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는지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영적 갈등을 무시하거나 숨기려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양심이 무뎌지지 않았기에, 그가 죄를 짓는 나를 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떠나지 않은 것이다.

(3)성경을 통한 영적 탈출

루터는 어거스틴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다. 죄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죄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허락받는 은혜에 버금가는 공로를 쌓아야 한다는 교리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확고해지기 시작하였다.

1512년 가을,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그 후로 그는 같은 대학에서 성경을 강의하는 사역을 맡게 되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먼저 자신의 신앙을 위해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 1513년부터 시편 강의를 시작으로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1518년에 다시 시편 강의로 이어갔다. 무엇보다 성경에 담겨진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루터의 신앙이 점점 안정을 찾아갔다.

어느 날 루터 생애의 일대 전환점이 찾아왔다. 그가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것이다. 이로 경험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동안 그가 '영적 고통'을 느낄 때마다 그토록 갈망하던 영적 탈출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이다. 그 중심에는 그가 '하나님의 의'에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다.

루터는 그때까지 항상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잘못을 꾸짖고 정죄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여왔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의'를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의 개념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는 징계의 개념이 아니라 도리어 죄인을 용서하시며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누구든지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고 확신하게 된 것이다.

루터가 '이신칭의 교리',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깨달은 사건을 '탑실 체험(Tower Experience)' 이라 부른다. 그가 기거했던 비텐베르크 어거스틴 수도원의 탑에 있는 연구실에서 체험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루터는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의 체험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의 겸손한 태도 때문이다. 자신의 연구의 결과 대단한 사실을 발견하였다며 자랑거리로 삼으려 하지 않았다. 오직 시편 강해를 시작한 1513년부터 로마서 강해를 막 시작한 1515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간단히 설명할 뿐이다. '이신칭의' 교리를 발견한 이후 전혀 다른 태도로 성경을 대할 수 있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새로운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비춰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은 스스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이 모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 사건은 루터 혼자만의 경험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한 개인의 체험이 교회 역사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로 루터는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중세 교회의 교리가 성경의 진리를 위배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가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성경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신이 개혁의 불씨가 된 것이다.

2. 개혁의 원동력에 대한 질문: 나는 무엇을 믿으며 어떤 삶을 살고 있나?

1)이민교회의 현실: 신앙과 삶의 불일치

1)이민과 신앙의 기회

초기부터 이민사회가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한국에서는 교회와 담을 쌓고 살았던 자들에게 신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처음 교회를 찾는 목적과 이유가 개인에 따라 달랐겠지만, 결국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신실하고 충성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된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신분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종차별 등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 신앙에 눈이 뜨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은 고달픈 이민자의 삶을 통해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2)종교성과 선택적 기독교 신앙

이민자들은 이민교회를 통해 절대자이시며 초월적인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을 소개받았다. 신앙심을 키우며 통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았다. 단지 삶의 여건이 신앙생활에 반영되면서 높아진 종교성에 근거하여 기독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다. 기독교를 자신에게 가장 커다란 유익을 주는 종교로 판단한 것이다.

한국인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 종교적이어서인지 아주 쉽게 교회의 분위기에 동화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동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다음이었다.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도 있었지만, 반면에 기독교를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별하여 수용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경의 기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욱 소중히 여긴 것이다.

3)지식과 행동이 동반되는 신앙의 실종

요즈음 이민교회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교회가 이민사회의 중심에서 주도하던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각종 분야의 전문인들이 생겨나서 교회가 이민자들을 위한 생활의 길잡이 노릇을 하지 않게 된 상황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사회에 대한 공헌도에 대한 언급도 아니다. 이민사회를 향한 교회의 근본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이민교회가 이민사회에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신앙공동체'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지금은 초기 이민자들의 경우처럼 자발적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시기가 지났다. 지금은 교회가 그들을 찾아가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이 사명을 누가 어떻게 맡아야 할까?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인답게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과 자세를 수정할 것을 과감하게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다. 우리가 먼저 묵묵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눈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날카롭다.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복음 증거와 내용이 없는 열정은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다.

2)루터의 고민과 해결책: 오직 성경

1)말씀을 붙잡은 사람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로마가톨릭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반박문을 95개 조항으로 작성하여 비텐베르크 대성당에 붙였다.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다. 사실 이 당시 루터는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에 국한되어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러면 무엇이 루터를 그토록 유명인사로 만들었을까? 로마가톨릭교회이다. 아예 교회의 개혁을 제안하는 루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반면에 '95개 조항' 자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결국 개혁의 불씨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다 도리어 불똥이 튀어 널리 확산된 것이다.

루터는 '95개의 조항'과 관련하여 몇 번의 자신의 입장을 변론한 기회를 얻었다.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를 가진 것이 아니라, 분노에 가득한 로마가톨릭교회 관계자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게 된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루터라는 존재가 로마 교황청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동시에 유럽 전역에 그의 개혁 사상이 퍼져나가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95개 조항' 자체가 논쟁의 초점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루터는 자신이 깨달은 성경에 대한 관점에서 로마가톨릭교회의 오류를 비판하였다. 상대의 반응도 더욱 세게 거칠어졌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자신의 입을 막고 심지어 아예 없애버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무섭게 달려들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루터는 오직 말씀을 붙잡았다.

1517년 5월에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논쟁이 있었다. 구텐베르크에 의한 인쇄술이 발명과 인문주의의 발달이 맞물려 도시마다 출판업이 성행하던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호재를 만난 것이다. '95개 조항'이 무려 16만부나 독일어로 번역되고 인쇄되어 독일 전역에 퍼졌다. 교황 레오 10세는 '95개 조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9면으로 계속〉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www.rptseast.org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2017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 출 서 류 ◇

❶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❷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❸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❹ 신앙고백서 1부
❺ 명함판 사진(2"×2") 2매
❻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❶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❷ 원서접수마감 : 2017년 9월 1일(금) 오후6시
❸ 입 학 시 험 : 2017년 9월 2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❹ 개 강 부흥회 : 2017년 9월 5일(화) - 9월 7일(목) 저녁 8시
❺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리더십 코멘터리 (48)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지금 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라

분명한 방향과 목표 갖고 성실하게 최선 다한다면 반드시 인정받아
광야는 비전으로 가는 길목...지금 하는 일에 목숨 거는 사람이 프로

지금 하는 일에 최고가 되라

강철 왕 카네기가 늘 마음 한구석에 생각해둔 사람이 있었다. "음, 저 사람에게 회사를 맡긴다면 틀림없이 잘 경영할거야." 카네기는 이렇게 생각하며 눈여겨두었던 그 철공에게 다가갔다. 그는 언제나 진지했고 성실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을 늘 즐거워하는 표정이었다. 카네기는 그 철공에게 공장장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철공은 한참이나 어리둥절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 전 다른 일은 못합니다. 평생 해본 일이라고는 쇳물에서 철관을 뽑는 일뿐입니다. 철공 일만은 제가 대통령이지요. 그러나 다른 일은 사양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철공 일만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그의 말을 들은 카네기는 철공의 진실된 마음을 알 수 있었다. "내가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말해서 참 미안하오. 당신 말이 맞소. 당신은 철공 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오. 그러니 오늘부터는 대통령 봉급을 주겠소." 결국 그 철공은 카네기 회사에서 가장 많은 봉급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당신이 지금 사회와 교회에서 리더로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 자리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리더로서 인생을 남다르게 살고 순간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본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방황하고 있는가?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올바로 가고 있는가? 급하게 빨리는 갔는데 역주행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저 인생과 사람에게 끌려가고 있는가? 아직은 연장되고 있는 당신의 생명의 날들은 보람 있고 행복한가? 인생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비전의 길을 가는 사람에겐 분명한 내일이 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갖고 사는 리더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확실히 붙잡아 성취감을 맛보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184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쏟아져 나와 그 해를 '황금의 해'라고 불렀다. 어떤 청년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캘리포니아에 금광을 사서 열심히 채굴했지만 금이 나오질 않자 금광을 팔아치웠다. 그런데 새로 인수한 사람이 1m쯤 더 파고들어 가자 노다지가 터져 나왔다. 금광을 판 청년은 여기서 황금보다 더 값진 교훈을 얻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1m 철학'을 정립하고 모든 일에 새롭게 임했다.

그는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들어가 그가 깨달은 1m 철학을 실천했다. 고객을 대할 때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이때까지 기울인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험 가입을 성사시켰다. 실패로부터 얻은 귀중한 교훈인 1m 철학이 결국 그를 거부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성공까지 불과 1m를 남겨놓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1m 철학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바란다.

무조건 열심히만 산다고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다른 방향으로 더 많이 가게 되어 목표와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인생길은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고 제대로 된 열심을 가져야지, 헛된 일에 열심을 내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 열심히만 뛴다고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다. 골인지점을 향해 방향을 잡고 뛰어야 마라톤에서 우승할 수 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잠도 제대로 못자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가정도, 행복도 다 잃어버렸다면 목표와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살았는데, 헛된 마음과 정처 없는 인생길을 걷고 있다면 그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혹시 방향이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자. 조금이라도 목표로부터 각도가 빗나가지 않았는지 살펴보자. 인생의 바른 목표와 방향을 정해놓고 최선을 다해 남은 날을 살고 밝은 내일과 희망찬 미래를 맞는 당신이 되기를 바란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직업 선수이냐? 취미생활이냐?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 그렇게 막연한 것 말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을 좀 더 화끈하게 표현하자면 "지금 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프로이지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없다면 당신은 아직도 아마추어에 불과하다.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인 일은 아예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 따분하고 심심해서 취미삼아 하는 일에는 목숨 걸고 할 만한 목표가 없다. 먹고 사는 것이 걱정 없고 투자비를 몽땅 까먹는 셈치고 소일거리 삼아 하는 일이라면 몰라도 이왕 시작한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목숨을 걸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 물론 살아가면서 실패는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다. 그러나 그 수업료는 비싸고 그러는 사이에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목숨 걸고 도전하는 전문성과 프로정신이 없으면 어느새 세월이 흘러 허리가 굽은 노인이 되고 만다.

새로운 비전의 땅에서 빛을 발하여 존경받는 리더가 되라

현실비관주의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좁은 안목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고 미리 겁을 먹고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게 된다. 이에 반해서 현실낙관주의자는 믿는 대로 보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비전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다. 꿈과 비전으로 충만한 비저너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일을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인생의 경주에서 결국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 승리하는 이유는 꿈과 소망을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이다. 비전을 소유한 사람은 내일과 미래의 무한한 잠재가능성을 보며 전진하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비관주의자들은 항상 주어진 문제를 과장한다.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는 진짜 큰 문제가 된다.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없는 생활을 계속해 나갈 때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인간관계는 망가진다. 그리고 자기가 지나쳐온 과거의 길을 되돌아보며 그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현실낙관주의자들은 비전을 과장한다. 그러나 비전은 아무리 과장해도 손해 보는 것은 없다.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토끼 밖에 그리지 못했어도 그것은 무엇인가를 성취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과장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하나도 없다. 인생길을 걷는 리더는 누구나 인생이라는 외로운 모험에 만족해야 한다.

용기와 도전정신과 담대함은 비전의 소산이다. 내일을 향해 도전하는 담대한 리더는 주위사람들을 안심시킨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촉구하며 언제나 보장된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이다. 비전을 가진 리더는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 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려고 앞장서다가 실패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리더는 실패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역사와 인간사회에 중요한 공헌과 기여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문제 속에 빠져 있는 리더는 아무것도 역사에 남길 수 없다. 전진하는 리더에게는 행복이 따라오지만 머물러 있는 리더에게는 행복도 멈추게 된다. 당신의 리더로서의 인생길이 사람들과 사회와 조직에 아름다운 기여와 성취를 남기는 발걸음이 되고 싶은가? 그러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빨리 가자'라는 가능성의 사고방식을 배우기 바란다. 그리고 사물을 비전의 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한다.

비전(vision)이란 하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다.

〈14면으로 계속〉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빚으시는 손길

젊은 시절에는 환갑이라면 노인을 연상했었는데 올해로 나도 환갑을 맞게 되었다. 요즘처럼 장수시대에 환갑을 챙기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서운하니까 한국 나와서 짧은 여행이라도 같이 가자는 언니들의 초청에 한국을 다녀왔다. 언니들이 다 한국에 있고 나 혼자 멀리 떨어져 살기에 다른 사람보다는 자주 한국에 나가는 편이지만 이번 여행 중에는 유난히 많은 사람을 만났다. 특별히 졸업 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중학교 동창생이 연락이 닿아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중학교 친구들을 두 번이나 만났다. 그 중에 한 친구를 제외하고는 다 사십오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들이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안 오려다가 이번에 너를 못 보면 언제 볼까 싶어서 왔다는 마음을 아프게 한 친구, 중학교 졸업 후 한 번도 못 봐서 너무 보고 싶다고, 꼭 가야 한다고 데려다 달라고 남편을 졸라서 춘천에서 온 친구, 중학시절 사춘기를 심하게 겪더니 시인이 되었다는 친구 등 학교 때는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던 친구들까지 모두 열두 명이 모였다.

때로는 재학 중인 학생들이 찾아 와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서 이러다가 치매 오는 것 아닐까 염려될 정도인 기억력인데 사십오년 전 친구들 이름은 왜 그렇게 생생하게 떠오르던지. 친구들 얼굴을 보면서 "얘, 너…아니니? 너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누가 들으면 얼마나 우스운 말일까? 사십오년 세월이 지난 친구들 얼굴들이 그대로라니. 그런데 눈이 컸던 친구는 큰 눈이 그대로 있었고, 얼굴이 동그랗게 통통하던 친구는 통통한 얼굴이 그대로 있었다. 우리는 그동안 흘러간 세월을 다 잊어버리고 마치 자주 만났던 사람들처럼 이야기꽃을 피우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고등학교 일학년 때 짝이었던 친구도 연락이 되어 사십이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너무 오랜만이어서 내가 혹시 못 알아 볼까봐 자기가 어떤 색 옷을 입고 나올지 미리 말해준 친구는 믿음 좋은 권사님이 되어 있어서 기뻤다. 친구가 고등학교 때는 신앙생활을 안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단정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대학교 단짝이던 창원에 사는 친구도 오래 동안 볼 수 없었는데 마침 서울 올 일이 있다고 해서 십여 년 만에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잘 이겨내고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마음이 좋았다. 대학시절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매일 함께 했던 새벽기도, 주말 병원전도로 마치 친형제, 자매처럼 가까운 기독학생회 후배들도 만났다. 늦은 밤까지 옛날이야기를 나누며 대학시절로 돌아가 깔깔 웃기도 하고, 또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로 간 동기, 후배들 이야기로 가슴 아파하기도 했다. 이제 나이도 들어가는데 기회 되는대로 자주 만나서 함께 여행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자는 언제 지킬지 모르는 약속을 하며 아쉬움으로 헤어졌다.

많은 세월이 우리 곁을 지나가서 우리의 외모는 희끗 희끗한 머리와 눈가의 주름이 늘어가는 데도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은 아직도 나를 단발머리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젊은 대학 시절의 "이명혜"로 기억하고 있었다. 함께 보냈던 시절에 내가 어땠었는지 얘기하는 친구들의 말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내 옛 모습이 떠올랐다. 나 역시도 옛날 친구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아직도 남아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반가웠고, 또한 친구들의 좋은 성품을 느낄 수 있을 때 더 반가웠다.

쉼의 시간이 지나고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나는 친구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돌아보며 내 삶의 모든 단계를 통해 나를 빚어 오신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 번 감사했다. 아름다운 추억들, 그리고 때로는 나를 아끼고 따르던 후배들이 볼 때 이해하기 어려워서 바보스러워까지 보였던 결정들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세상의 것과는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 이 땅에서의 남은 삶도 끊임없이 주님의 성품에 맞게 빚어 가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래본다.

lpyun@apu.edu

2017년 시카고 뉴라이프교회 장학생 모집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를 섬기는 예수의 사랑 공동체" 라는 비젼을 가지고 창립된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제 16회 뉴라이프교회 장학생을 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응모자격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및 소수 민족으로써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며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춘자.
- 현재 신학교나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또는
-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로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대학원과정은 최소 8학점,
학사과정은 최소 15학점이상 이수하고 평균GPA가 B이상이어야 함.

선발인원 15명: 각 $1,500

제출서류
1. 신청서(본교의 소정양식) - 신청서는 본 교회 웹페이지 (www.NLChicago.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앙 간증문 및 비전(2페이지 이하)
3. 추천서 2부. 담임목사, 지도목사 혹은 지도교수
4. 성적 증명서

응모마감 2017년 10월 31일
수여자 발표 2017년 12월 17일, 본 교회 웹페이지에서 발표됩니다.
신청서류 보낼곳 New Life Church of Chicago
Scholarship Committee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본 장학생 모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먼저 본 교회 웹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이메일(scholarship@nlchicago.org)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라이프교회 New Life Church 담임 장춘원 목사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web www.NLChicago.org
e-mail newlifechicago@yahoo.com
T.847-359-5200 F.847-359-8409

구 독 신 청 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 국	$100	유 럽	$190
캐나다	$110	남 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 청 유 형	☐ 본인구독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목 사 ☐ 영 어 : 평신도 ☐
배 달 주 소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 달 주 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무지(無知)의 소치(所致)

설명할 수도 없다. 따질 수도 없다. 그래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고 때론 몸이 고생을 하게 된다. 무지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다.

오늘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며 버스를 탔다. 알려주기를 탈 때 돈을 내면서 갈아탈 수 있는 티켓을 달라고 하면 기사가 준다고 하여 그러려니 하고 요구를 했는데 기사가 일체 응대를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도 무반응, 좀 큰 소리를 말해도 아예 쳐다보지 조차 않는다. 하기야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알아들을 능력도 없지만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는 무시하는 처사엔 은근히 속이 뒤틀렸으나 그것이 전부다.

사건은 늘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난다. 분명 내릴 곳에서 벨을 눌렀으나 차는 계속 서지 않고 통과를 하여 내가 내려야 하는 곳에서 네 블록이나 지나서 섰다. 입이 있어도 제 구실을 못하니 그저 눈을 흘기며 내려야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화가 나기보다 자괴감이 들었다. '이 뭐하는 모습인가? 이 꼴이 뭔가?'

지금도 그 버스기사가 요구하면 준다는 티켓을 왜 주지 않았는지, 왜 내리겠다고 벨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세워주지 않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더욱 나 자신에게 부글거린다. 덕분에 땀을 흘리며 억지춘향처럼 운동은 했다. 든든한 두 발 두었다 뭐하냐는 오기와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30여 분 이상을 걸어서 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몸을 벌 줬다고 맘까지 풀리지는 않는다. 알고 하지 않는 것보다 몰라서 못하는 것은 더 나쁘다는 공자의 교훈과 같이 입이 있으되 입의 구실을 하지 못한 것은 나의 게으름 때문임이 분명한 까닭이다.

오늘 나 자신이 무식하여 겪은 작은 소동은 나 하나로 끝이 난다.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도, 인생의 성패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 무지가 죽느냐 사느냐를 가른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땅을 치며 통곡을 해도 돌이킬 수 없고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 흘러간 세월을 붙잡을 수 없듯 이미 지나가버린 기회가 무지로 인해 비롯되었다면 이는 대사(大事)가 아닐 수 없다.

인생의 대사 중의 대사는 영생(永生)의 문제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령이 되게 하셨다. 생령은 살아 있는 영, 즉 죽거나 소멸되지 않는 영이라는 말이다. 이 죽지 않는 영이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의 갈림이 강건하여 팔십을 살게 되는 이 땅에서 결정이 된다. 그 결정은 매우 단호하다. 피도 눈물도 없다는 말을 하지만 그 갈림이 바로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의 여부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갈린다.

지옥에서의 영생! 그것은 어쩌면 사는 것이 아닐 것이다. 차라리 죽음만도 못한 삶일 것이다. 그러나 한 번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는 결코 죽을 수가 없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영생의 지옥은 그래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고 끔직하다. 왜 그런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눅16:24). 지옥이 어떤 곳인지 상상할 수 있는가? 부자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간 자의 그 아주 작은 소원마저 거부되는 곳이 지옥이다. 손가락에 찍은 물이 얼마나 되겠냐마는 그것마저도 거절되는 곳이다.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우나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영원히(절대 끝나지 않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곳이 지옥이다.

그 지옥의 영생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천국)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즉 천국에 갈 다른 길도 이름도 주시지 않았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무지의 소치로 바꿔 탈 차표를 받지 못하거나 내릴 곳에서 내리지 못해 얼마를 걸었다는 불편은 사실 별 것이 못된다. 그러나 무지의 결과로 인해 오직 한 길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비극이며 불행이다.

나는 소원한다. 이 글을 보는 분들은 누구라도 무지의 소치로 인해 영원한 지옥에 들지 않기를.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들도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무엇보다 무지의 소치로 인해 단 한 번뿐이 이 땅에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hanmac@cmi153.org

성경적 가치관 회복 세미나 연다

7, 8일 종교개혁 500주년기념...강사 알렌파커, 주해홍, 정한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성경적 가치관 회복 세미나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대표회장 한기홍 목사) 주관으로 열린다.

'성경으로 돌아가자'(회개, 성결, 선교)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세미나는 목회자, 평신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당일 세미나 내용 및 담당자는 △왜! 낙태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알렌 파커 변호사(The Justice Foundation 설립자 및 대표) △우리 교회부터 성경 속으로: 주해홍 목사(에스라 성경통독 사역원 대표) △부모여, 자녀를 제자 심으라: 정한나 사모(남가주광염교회) 등이 나선다.

세미나는 9월 7일(목)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로텍스 호텔에서, 8일(금)은 장소를 오렌지카운티로 옮겨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웨딩홀에서 같은 시간에 열린다.

이를 위해 25일 오후 2시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는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으로, 완전히 기독교가 성경을 떠나 변질된 것을 당시 신학교수인 마틴 루터가 95개조 들고 종교개혁 불이 붙었다"며 "개혁은 인간이 하는 것인 만큼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최근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것을 모르는 교인이 80%에 이른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성경적 가치관 회복 세미나 기자회견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강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대회의 목적과 결과는 △교회마다 성경 읽기와 삶의 일치운동 △성경적 가치관 회복운동(성경적 가정회복운동, 생명존중운동, 성경적 도덕성 회복운동, 차세대 신앙전수운동) △미국과 한국에 대부흥을 주시도록 지속적인 회개와 기도 △미국과 한국의 정재계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선교사 위한 기도와 선교운동의 활성화 등"이라 설명했다.

공동준비위원장인 이호우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에 마련된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이번행사를 공동 주최한 단체 중 사회와 교계에 물의를 일으킨 단체와 목회자가 속해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언론인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뜻 깊은 행사에 자칫 물의를 일으킨 교계단체의 참여가 종교개혁 500주년기념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 수 있음이 염려된다"며, "성경을 역행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에 맞선 종교개혁과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뉘우친 길선주 장로의 눈물의 회개로 인해 일어난 평양대부흥을 생각하면 물의를 일으킨 자와 그가 속한 단체의 참석은 이번 행사를 접한 성도들이 행사에 대해 곱게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문의: (310)995-3936, (213)507-3875

〈박준호 기자〉

조천일 목사 소천

고 조천일 목사 천국환송예배가 글렌데일 포레스트론 채플에서 열렸다

한인 이민교계의 원로이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장등을 역임했던 조천일 목사(전 라성빌라델비아교회 담임)가 지난 1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90세.

조 목사는 그동안 요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아왔는데 최근 증세가 갑자기 악화돼 이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고인의 장례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으로 치러졌으며, 입관예배는 24일 오후 2시 글렌데일 포레스트론 채플에서 조승철 목사 집례로 시작, 이영 목사(빌라델비아교회)가 기도를, 유재일 목사(KAPC 총회장)가 '믿음의 증거를 남긴 자'(히 11:13-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김요섭 목사(가주노회 부노회장)가 약력을 소개했다.

이어 김정복 목사, 김춘근 장로, 고인의 장남 조동호 집사, 고인의 손자 재명 형제가 조사를 했으며 조신희, 재혁, 준혁, 애린, 대선 예신 등 고인의 자손들이 조가를 부르고 김상덕 목사(KAPC 전총회장)가 축도했다.

하관예배는 같은 날 오후 4시에 최중현 목사 집례로 열렸으며 이영희 목사(남가주노회 노회장)가 기도했으며 이정현 목사가 '부활의 영광'(살전4:13-1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김태형 목사(ANC온누리교회)가 축도했다.

고 조천일 목사는 총회신학교와 미국 칼빈신학교 석사,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를 취득했으며, 대구 서현교회 전도사를 시작으로 서울 충현교회 부목사,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라성빌라델비아교회 설립 및 위임목사로 사역했다.

또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총무, 개혁신학교 이사장과 교장,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총장,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국제선교협력기구 미주 이사장,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재미한인기독교교회협의회 총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와 "시내산을 떠나서 시온산으로", "산 제물이 되어 헌신 충성하자", "사랑의 새 계명" 등이 있으며, 지난 2008년에는 80세와 성역 50주년이 되는 기념으로 "생명나무가 되어…"를 출간하기도 했다.

유가족은 부인 조예신 사모와 2남 2녀, 손자녀 7명, 증손자녀 5명이 있다. 〈박준호 기자〉

한인기독합창단 제 58회정기연주회가 '시편축제'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시편 축제' 주제, 성황 이뤄

한인기독합창단 제 58회 정기연주회

한인기독합창단(단장 송대영, 지휘 김동근) 제 58회 정기연주회가 27일 저녁 7시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김민희 목사 기도로 시작된 연주회는 '잠잠하라 내 영혼아', '이 세상은 주의 것이로다', '유빌라테 데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등을 불렀으며 여성합창으로 '참 좋도다 여호와께 감사함이', '다 손뼉 치며 크게 외쳐라' 등을 불렀다.

그리고 소프라노 김은진, 이미아, 오수연, 김미경, 앨토 김은영, 테너 김일두, 오영훈, 베이스 김진수가 바이올린 진사라, 진한나, 첼로 김원선, 하프시코드 박세화의 연주에 맞춰 크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시편 112편'을 불렀다.

또 장애인 배우은 자매와 본 합창단이 제갈소망 부지휘자의 지휘로 '주 돌보시리'와 '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를 불렀으며 오보에 연주자 권유리, 조숙행 씨의 듀엣 연주, 제갈소망 부지휘자의 피아노 연주가 있었다.

이날 연주회는 헨델의 'Laudate pueri, HWV 237(시편113편)'을 솔로이스트 소프라노 안나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음성과 본 합창단의 화음이 한데 어우어진 가운데 공연돼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박준호 기자〉

제7회 시각장애인 개안수술돕기 자선음악회에서 LA사랑의부부합창단이 찬양하고 있다

"영혼의 빛, 마음의 빛, 육신의 빛을 선물로"

제7회 시각장애인 개안수술돕기 자선음악회

제7회 시각장애인 개안수술돕기 자선음악회가 27일 오후 5시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실로암선교 미주후원회(회장 이영휘 장로)가 주관하고 실로암안과병원(원장 김선태 목사)이 주최한 자선음악회는 방송인 윤우경 아나운서 사회와 김신 목사(주향교회 담임) 개회기도로 시작됐으며 김선태 목사가 영상으로 인사말을 전했다.

김선태 목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보기 원하는 앞 못 보는 이들에게 영혼의 빛, 마음의 빛, 육신의 빛을 선물로 안겨주기 위해 열리는 이번 자선음악회에 함께 한 믿음의 성가대원들과 합창단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음악회가 빛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선음악회는 윌톤한인장로교회 바이올린 앙상블(지휘 김주희), LA사랑의 부부합창단(지휘 이태정), 윌톤한인장로교회 성가대(지휘 김주희), 헤븐리 미션 코랄(지휘 김원재), 대흥장로교회 찬양대(지휘 임정식), 선한목자교회 성가대(지휘 김원재), 레위남성성가단(지휘 곽명규), 주님세운교회 성가대(지휘 서병호), 영아티스트 오케스트라(지휘 다니엘 석)가 참가했다.

이날 음악회는 전출연자들이 연합합창으로 'How Great Thou Art'를 부른 뒤 박성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종교개혁 500주년

〈7면에서 계속〉

루터의 스승 스타우피츠를 통하여 교섭이 들어왔다. 결국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린 어거스틴수도회 독일 분회에서 그의 자신의 입장을 '28개 조항'에 담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을 의롭게 하신다는 성경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1518년 5월에 아우스부르크(Augusburg) 논쟁이 있었다. 루터는 자신의 입장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한 '95개 조항에 대한 해설'을 교황에게 보냈다. 결국 사건으로 인하여 루터는 이단으로 규정되었고, 나아가서 로마에 출두하여 심문을 받으라는 소환장을 받게 되었다. 루터를 두텁게 신임하던 프리드리히(Fredrich) 백작이 이 일을 해결하기위해 나섰다. 아우그스부르크에서 열리는 제국회의에서 추기경에게 심문을 받을 수 있도록 교황청과 타협하였다. 매우 떨리는 자리였으나 용기를 내어 출석하였다. 담대하게 자신이 성경을 통해 깨달은 이신칭의 교리를 주장하였다. 상대가 자신을 체포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정보를 전달받고 밤에 말을 타고 비텐베르크로 도망갔다.

1519년 7월에 라이프찌히(Leipzig) 논쟁이 있었다. 원래 이 자리는 루터보다 3살 어리지만 그를 가르쳤던 안드레아스 칼슈타트(Andreas Karlstadt)와 요한 에크(Johann Eck)가 대결하는 자리였다. 칼슈타트가 불리해지자 루터가 자원해서 논쟁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루터는 교황의 교회 수위권을 부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임을 천명하였다. 나아가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외에 것을 믿으라고 강요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주장하였다. 상대는 루터를 교황의 권위를 거부하여 중세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된 얀 후스(Jan Hus)와 연결시켜 이단으로 고발하였다. 얼마 후 로마가톨릭교회는 루터를 파문하기로 결정하였다. 루터는 비텐베르크대학 학생들과 교수 그리고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교화의 파문 교서를 불에 던졌다. 이 논쟁 이후로 루터는 교회개혁의 선구자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1521년 1월에 보름즈(Worms) 제국회의가 열렸다. 로마 황제가 루터에게 보름즈 제국회의에 출두하여 심문을 받으라는 소환장과 함께 안전보장 확인서를 함께 보냈다. 그 장소는 매우 위험한 곳이니 절대로 가지 말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당당하게 황제 앞에 섰다. 논쟁을 예상했지만, 일방적으로 루터에게 자신의 입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루의 시간을 허락받고 기도한 끝에 답을 얻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하였다.

"성경의 증거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 저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제가 인용한 성경이 저를 구속할 것입니다. 또 저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아멘!"

여러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을 할 것인지를 정리하기 위해 말씀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나아가서 성경에 입각한 중세교회의 신학적 오류와 자신이 깨달은 이신칭의 교리를 로마가톨릭교회 유럽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계속되는 논쟁은 종교개혁에 큰 유익이 되었다. 비록 루터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성경적 종교개혁의 불길이 크게 확산 되는 계기가 되었다.

covenantcho@yahoo.com

동부교계 게시판

east

뉴욕교협 임실행위원회

제 43회기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홍석 목사) 임실행위원회가 9월 7일(목) 오전 10시30분 늘기쁜교회(담임 김홍석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임실행위원회는 총회에 앞서 열리는 제 43회기 마지막 임실행위원회가 된다.

▲문의: (718)279-1414

박요한 전도사 찬양간증 예배

박요한 전도사 찬양간증 예배가 9월 8일(금) 오후 8시30분 뉴욕어린양교회(담임 박윤선 목사)에서 열린다. 기대, 축복의 사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란 테마로 진행된다.

▲문의: (718)899-8309

담임목사 청빙

토론토 빌라델비아장로교회(KAPC 캐나다노회 소속)가 김경진 담임목사 은퇴로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KAPC 교단소속 또는 교단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개혁교단 소속 목사로 정규 신학대학원(M. Div) 이상 졸업, 목사안수 후 5년 이상 목회경력, 만 40-55세(기혼), 한국어 외 영어 소통이 원활한 캐나다 또는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 혹은 합법체류자. 제출서류는 이력서(최근 3개월 이내 촬영 본인 및 가족사진 첨부), 자기소개서(신앙간증 및 목회소명 목회경험 포함), 목회계획서(목회철학, 비전, 레터용지 3매 이내), 목사안수증명서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M. Div) 및 학위증명서 1부, 현 소속교단 확인서, 최근 6개월내 설교 동영상(설교문 포함) 2편, 추천서(봉인) 2부(목회자 1인, 평신도 1인). 서류제출 마감은 10월 31일(화)이며 이메일로 보내도 된다. 이메일: billjangtoronto@gmail.com

▲문의: (416)554-7495 청빙위원장 장영일 목사

뉴욕조이플여성합창단 제6회 정기연주회

뉴욕조이플여성합창단 제6회 정기연주회가 9월 10일(주) 오후 6시30분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열린다. 이민자보호교회 후원 및 과테말라 선교 후원으로 열리는 이 연주회 출연진은 지휘 최연옥, 피아노 이세리, 소프라노 이희정 백선화.

▲문의: (917)579-7478

퀸즈장로교회 섬머 뮤직캠프 쇼케이스에서 유스오케스트라가 공연하고 있다.

다양한 음악 통해 하나됨을 배운다

퀸즈장로교회 섬머 뮤직캠프 쇼케이스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섬머 뮤직캠프 쇼케이스가 지난 25일 저녁 7시 본 교회당에서 열렸다.

총 100여명이 참가해 22일부터 나흘간 진행됐던 뮤직캠프에서 배운 바를 선보인 쇼케이스는 콰이어(지휘 이선경), 유스오케스트라 #1(지휘 보리스 살가도), 오보에, 클라리넷, 플룻, 바이올린, 첼로 팀이 각각 연주했으며 유스 오케스트라 #2(지휘 오재혁)가 마지막으로 연주했다.

연주회는 이정훈 집사의 환영 및 감사인사, 강지영 전도사의 기도, 김성국 목사의 말씀, 수료증 증정 및 축도로 진행됐다.

김성국 목사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본문으로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로 지음받은 멋진 지체들"이라며 "다양한 음악을 통해 하나 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뮤직캠프다. 하나님은 같이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말하고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교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유원정 기자〉

풍성한 황금률 실천의 장...

뉴욕목사회 '굿 사마리탄 찬양 대축제'

뉴욕목사회가 주관한 '굿 사마리탄 찬양 대축제'가 지난 27일 저녁 6시부터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열렸다. 뉴욕목사회는 이날 장학금과 선교회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회장 김상태 목사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사마리아 사람을 본보기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굿 사마리탄 찬양 대축제를 열게 됐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풍성한 황금률 실천의 장이 이곳에서부터 펼쳐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과 기대를 갖고 오신 분들을 환영한다"고 인사말에서 밝혔다.

'굿 사마리탄 찬양 대축제'에서 장학생과 선교회에게 후원금을 전달 후 뉴욕목사회 임원들과 기념촬영 했다.

김홍석 뉴욕교협회장의 시작기도에 이어 클라리넷 듀엣(김신애, 최동현), 뉴욕목사합창단, 신광오카리나 앙상블, 뉴욕권사선교합창단, 뉴욕수화찬양(뉴욕농아인교회), 뉴욕효신교회청년찬양대의 공연이 있은 후 헌금 시간을 가졌다. 헌금기도는 부회장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가 맡았다.

이어서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 뉴욕장로성가단, 뉴욕크리스탈핸드벨콰이어, 랜디 브룩스의 공연이 있은 후 장학금과 선교후원금 시상식이 있었으며 월드밀알선교합창단과 연합찬양을 한 후 장석진 목사의 축도로 모두 마쳤다.

뉴욕목사회는 이날 9명의 장학생들에게 총 5400달러, 농아인선교회(이철희 목사), 탈북난민돕기(김영란 권사), 월드밀알(이다윗 목사) 등 3개 선교회에 총 2700달러를 후원했다.

또 서기 박현숙 목사, 상담분과위원장 김금옥 목사, 교계원로 허걸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유원정 기자〉

영생장로교회 장학금수여식

가난하나 비전 있는 신학생 대상

영생장학회 제1회 장학금 수여식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담임 백운영 목사) 제1회 장학금 수여식이 8월 17일 오후 7시 동 교회당에서 열려 전 세계에 있는 학생 24명에게 총 45,400달러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 장학금은 이용걸 원로목사가 은퇴하면서 받은 은퇴금 1백만 달러 중 50만 달러를 시드머니로 2016년 설립된 영생장학회의 첫 열매다. 이용걸 목사는 은퇴금을 교회에 다시 내놓고 50만 달러는 세계선교사 목회자 수련회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50만 달러는 전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바 있다.

올해 예정된 영생교회 교인 중 신학생 지원금을 포함해 올해에는 총 7만여 달러의 장학금이 전달되며, 내년에는 장학금 액수가 확대될 예정이다.

장학금 수여식은 김용찬 장로(영생장학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용걸 목사가 베드로후서 1:12-15를 본문으로 "생각나게"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선포했다.

목사 혹은 선교사 자녀들 중에서 앞으로 목회자 혹은 선교사로 헌신할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장학금은 미래 교회와 선교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만 아니라 한국, 중국, 태국, 콜롬비아, 파라과이, 브라질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직접 참가하지 못한 학생들은 영상으로 감사와 비전을 전했다.

영생장학회 장학금에는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장학금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장학금 △다음세대 지도자 장학금 △영생교회 교인 신학생 장학금 △일반 장학금 등이 있다.

백운영 담임 목사 "모든 장학금은 장학 위원회에서 투명하게 정한 기준으로 선발되고 지급된다"고 강조했다.

더 많은 정보는 영생장학회 홈페이지(yspcscholarship.org)에서 볼 수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8월 정기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엘살바도르 선교보고...하나님이 하신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8월 정기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유상열 목사)가 지난 23일 8월 정기예배를 드리고 엘살바도르 단기선교 보고 및 2017년 남은 사역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오전 10시30분 기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에서 드린 예배는 박이스라엘 목사 인도로 기도 김인한 장로, 설교 최창섭 목사, 합심기도, 축도 박진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최창섭 목사는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출3:7, 9절)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모세를 보내서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본문의 4가지 동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다. 즉 보고, 듣고, 알고, 가라"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①하나님이 고통을 보셨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신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야 한다. ②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는데, 성도들의 고통이 들리지 않거나 혹은 들으려 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③안다는 것은 경험적 인지로써, 우리 사역이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하거나(목회), 믿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거나(선교) 모두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④모세에게 가라고 하시며 내가 함께 하리라 하셨다.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 숨이 멎는 날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 말했다.

2부 회무는 유상열 목사 개회기도 후 시작돼 전희수 목사가 엘살바도르 단기선교 동영상을 통해 보고시간을 가졌다.

전 목사는 "이번 엘살바도르 방문에서 황영진 선교사의 헌신을 보고 감명 받았다"고 말하고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작은 물질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도 하게 하셨다"고 설명했다.

2017 과테말라 지원 선교는 화장실 부뚜막 개선사업과 아울러 교실 증축사업으로 확대됐다.

또홈페이지(www.breadngospel.org)를 적극 활용, 회원 간의 나눔은 물론 사역 증진에 큰 역할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동 기구 9월 정기예배는 20일(수)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유원정 기자〉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0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08:00
새벽기도회: 오전 05:30
금요기도회: 오후 08:0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nygo4tgc@yahoo.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718)361-9199, Fax.(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www.moakyang.org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fkcb.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 (화-토)
Tel.(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e@yahoo.com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http://www.cpcofny.org
Tel.(718)279-2757, 2758, Fax.(718)279-1823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18)461-7835, CP.(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 예배: 오전 9:00
주일2부 예배: 오전 11:00
EM영어 예배: 오후 1:30
화요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347)502-2571, Fax.(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http://nycdchurch.com/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Fax.(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5:00
영어예배: 오후 1:00
Tel.(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Fax.(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q.org

퀸즈한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718)672-1150 Fax.(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qny.org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www.pcov.org
Tel.(604)584-5780, Fax.(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밤예배: 오후 7:00
Tel.(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2,3,부 스페니쉬 설교)
Tel.(595)21-574-985
E-mail: hani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Fax.(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은사 재능 사용 지역교회와 선교헌신

어린이선교뮤지컬팀 SOW 'Friday Night' 공연

어린이 선교뮤지컬팀 Seeds Of Worship(SOW 디렉터 에스더박)의 'Friday Night' 뮤지컬 공연이 26일 저녁 7시 라미라다 극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에스더박 디렉터는 "이번 공연을 위해 1년간 준비해왔다"며 "무대에 서게 된 아이들과 이곳을 찾은 아이들, 그리고 부모들이 즐겁게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공연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운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을 찾은 모든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 오프닝 콘서트는 SOW KIDS(3학년), SOW JRS A(4-5학년), SOW JRS B(6-7학년), SOW KIDS 등 SOW 멤버들의 흥겨운 찬양 댄스공연으로 이날 공연의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Friday Night' 뮤지컬로 이어졌다.

SOW는 지난 2010년 15명의 학생들을 예수님을 위한 예배자와 지도자가 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됐다.

2011년부터 또래 학생들에게 공감 받고 적용될 수 있는 독창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음악사역을 공식적으로 진행했으며, 2017년 현재 80여 명의 학생들이 매주 모여 연습하며 도전하는 가운데 춤, 노래 및 악기를 통해 가족, 교회 및 학교에서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다.

SOW는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 지역교회와 사회 및 해외 선교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문의: (714)904-8434

〈박준호 기자〉

SOW뮤지컬이 라미라다 극장에서 열렸다

감사한인교회 부흥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지용수 목사가 말씀선포후 합심기도를 인도하고 있다

'그리스도인 큰 용사' 주제

감사한인교회 부흥성회, 강사 지용수 목사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 부흥성회가 '그리스도인 큰 용사'라는 주제로 24일부터 27일까지 지용수 목사(창원 양곡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열렸다.

감사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영길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26일 저녁 집회에서 지용수 목사는 '실수와 축복'(창9:20-2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지 목사는 "이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은 없다. 다 부족하다"며 "우리 가슴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다. 이상적인 배우자는 없다. 기대는 주님께만 있다. 실수를 까발리면 저주는 내게 찾아오지만 실수를 덮으면 복이 내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지 목사는 "훌륭한 지도자의 실수로 손해 보지 말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실수했다. 우리가 실수해도 주변사람 실수해도 사랑으로 덮어서 하나님 영광 지켜드리고 술 취해서 불행한 일 만나는 일 없게 하고 성령충만해서 주님처럼 살아가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24일 저녁 집회는 '모세야! 모세야!'(출3:1-5), 25일 새벽집회는 '야고보의 삶의 자세'(약1:1-5), 저녁집회는 '숨을 내쉬며 하신 말씀'(요20:19-23), 26일 새벽집회는 '종말을 사는 성도의 지혜'(마24:16-27), 27일 1부 '한 소녀의 믿음'(왕하5:1-4), 2부 '은혜의 배달부'(왕하5:9-15), 3부 '큰 용사'(삿6:12-16)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선포했다.

〈박준호 기자〉

헤븐스밴드

헤븐스밴드, 베스트 뮤직비디오 2위

한인뮤지션 최초로 결승 올라

남가주에서 한인들로 구성된 크리스천 밴드가 전 세계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을 대상으로 매달 열고 있는 뮤직비디오 작품대회에서 한인 최초로 영예의 2등상을 수상했다.

지난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Music Video Underground International Festival(이하 MVUIF)에서 한인크리스천 인디밴드인 헤븐스밴드(리더 최천국 전도사)가 Dejong Film Cinematographers(대표 종유석 전도사)에서 제작한 '괜찮아질 거야(It's gonna be okay)'가 덴마크 남성그룹 Gents의 'Brother'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MVUIF는 시사회 같은 개념의 대회라고 소개한 최천국 전도사는 "작년 2월에 음원을 내고 7월에 뮤직비디오가 나왔다"며 "뮤직비디오 반응이 좋아서 종유석 감독이 MVUIF에 출품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2위를 차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전도사는 '괜찮아질 거야'는 콘티작업부터 시작해서 촬영까지 총 1달 정도 걸렸다고 말하며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배우들까지 모두 한인들이 참여했으며 노래도 한국말로 불렀다.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뮤지션들이 출품한 작품들 가운데 2위를 차지한 것과 한인뮤지션이 최초로 출품해 얻은 결과라는 것이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장르는 크로스오버이지만 크리스천 뮤직에 기초를 두고 제작한 것이라 더욱 뜻 깊다고 최 전도사는 말했다.

MVUIF는 2016년에 시작됐으며 매달 출품된 뮤직비디오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열고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musicvideounderground.wordpress.com/winners/may-2017/

최천국 전도사는 "'괜찮아질 거야'의 메시지는 모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 말하며 크로스오버를 기반으로 하는 크리스천밴드들이 많이 배출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븐스밴드의 '괜찮아질 거야' 뮤직비디오는 유투브(https://youtu.be/hnDI9nCW154)에서 볼 수 있다.

〈박준호 기자〉

소망케어교실 자원봉사자 여행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에서 운영하는 치매환자를 위한 소망케어교실의 봉사자들이 지난 8월 23일 산타바바라 당일 기차 여행을 다녀왔다.

소망케어교실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해 매 주 수요일 애너하임 장로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9명의 봉사자들은 사랑과 정성으로 매 주 치매 환자들을 성심성의껏 섬기며 봉사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봉사자들은 심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으며, 아울러 봉사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됐다고 소망소사이어티 측은 밝혔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서부교계 게시판

west

남가주사랑의교회 2017 영적각성집회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2017 영적각성집회를 '신앙의 기본으로'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강사는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9월 8일(금) 오후 7시30분, 9일(토) 오전 6시10분, 오후 7시, 주일 1, 2, 3부예배이다.

▲ 문의: (714)772-7777

베델한인교회 추계부흥성회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추계부흥성회를 '인격적 만남에서 온전한 누림까지'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강사는 홍기영 목사(창조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9월 1일(금) 저녁 7시30분, 2일(토) 새벽 6시, 저녁 7시, 3일(주일) 1-4부 예배.

▲ 문의: (949)854-4010

LA연합감리교회 부흥회

LA연합감리교회(담임 이창민 목사) 부흥회가 '마음을 새롭게'(롬12:2)라는 주제로 9월 1일(금)부터 3일(주)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송기성 목사(정동제일교회 담임)

▲ 문의: (310)645-3699

박인수와 친구들 콘서트가 목자영광교회에서 열렸다

목자영광교회 '박인수와 친구들' 콘서트

목자영광교회(담임 김철수 목사)는 박인수와 친구들 콘서트를 27일 오후 6시에 가졌다. 이날

콘서트는 테너 박인수 교수와 그의 제자들이 소프라노 독고정화, 송란, 테너 오위영과 함께 무대에 올라 찬양과 가곡, 그리고 한국민요 등을 불렀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를 4중창으로 부르며 시작된 콘서트는 테너 오위영 목사가 '험한 십자가', '선구자', '그라나다'를 소프라노 송란이 '주기도송', 소프라노 독고정화가 '보리밭'을 불렀으며 송란과 독고정화가 듀엣으로 '나'를 불렀다.

또 테너 오위영과 함께 3중창으로 '내 맘의 강물'을 불렀다.

테너 박인수 교수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보라', '클레멘타인', '옛날이 금잔디' 등을 불렀으며 합창으로 '인애하신 구세주여'와 '그리운 금강산'을 불러 이날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여름밤 잔잔한 추억을 선사했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에서 운영하는 치매환자를 위한 소망케어교실의 봉사자들이 산타바바라 당일 기차 여행을 실시했다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714)521-0991, Fax(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Fax.(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213)388-7101 ,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62)691-0691, (F)(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a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x(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csc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 은 이 예 배 : 오후 1:20
영어권(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00
주일2부예배:오전 9:30
주일3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새 벽 기도회: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Fax.(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www.d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4:0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www.mpcla.org
Tel.(213)381-2202, Fax.(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949)854-4010 / E-mail: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745-9191(CH), 사탁(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213)245-4090 Fax.(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949)857-9425 / Fax.(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젊은이예배: 오후 6:00
Tel.(213)384-7274, Fax(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www.gracemi.com
Tel.(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5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Fax(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mj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Fax(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ic.org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714)646-9259 Fax.(714)646-9264
16800 Im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rstonetv.com / e-mail:pastor@lacornerstone.com
Tel.(310)530-4040(CH), Fax(310)530-84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장년, 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한기총 새 대표회장에 엄기호 목사 선출

임시총회서 2차 투표 접전 끝 당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23대 대표회장에 엄기호(70) 경기도 광주 성령교회 목사가 선출됐다. 엄 목사는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한기총 임시총회에서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144표를 얻어 서대천 목사(110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엄 목사는 1차 투표에서 127표를 얻어 서 목사(78표), 김노아씨(70표)를 크게 앞질렀지만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

엄기호 목사 당선 의미는

엄 목사의 당선은 조직 안정과 연합사업 계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엄 목사는 1999년부터 한기총 공동회장을 5차례나 지냈기 때문에 선거 전부터 조직을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 소속인 엄 목사는 김노아씨에 의해 대표회장 직무가 정지된 이영훈 전 대표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2월 공식 출범할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 전 대표회장이 추진하던 연합사업을 승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의 또 다른 관심사는 나머지 두 후보의 득표율이었다. 전도관 출신인 김씨는 신천지와 유사한 신학사상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았으며, 선거 직전 '4월 성탄절'을 주장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김씨는 정통교회 후보자와 이단성 의혹 후보자라는 대결 구도에서 자기 세력을 결집했지만 1차 투표에서 탈락했다. '이단성 인사는 안 된다'는 총대들의 확고한 신앙 기준을 넘지 못한 것이다.

서 목사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교계에선 신인에 가까운 서 목사는 "한기총이 잃어버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며 막판 호소에 나서 총대들의 표심을 끌어냈다. 60, 70대가 주도하는 한기총 리더십 구도에서 54세 나이로 출마해 110표를 얻어낸 것만 해도 적잖은 성과다.

신임 대표회장의 과제는

엄 목사는 1차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140여표가 갖는 의미를 분석해야 할 과제를 안았다. 2차 투표에서는 17명이 합류했지만 여전히 120명은 지지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대형 교단에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군소교단 표심이라는 분석이 많다.

또 이영훈 전 대표회장의 잔여 임기인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조직을 안정시키고 보수 복음주의교계 대표자로서 연합 논의에 나서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짊어지게 됐다.

법적 공방에 나설 수도 있다. 선거에 패한 김씨 측이 또다시 소송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 측근은 이날 "(서대천 목사가 회장인) 글로벌선교회가 사실상 유령단체인데도 후보로 인정해 우리 측이 피해를 봤다"며 "신임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씨 본인은 투표에 앞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고소·고발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선서한 바 있다.

엄 목사의 공식 업무는 김씨가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거나 이 전 대표회장이 제출한 직무정지 가처분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시작된다.

동성애 합법화 개헌반대 서명자 25만명 넘어

대통령 · 개헌특위 위원장 등에 전달키로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반대 서명자가 23일 25만명을 넘어섰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은 이날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 조장하는 헌법 개정을 막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했는데 한 달도 안 돼 25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반연 홈페이지를 통해 20만명, 우편으로 5만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는데 247개 대학 2551명의 교수와 244명의 법조인도 서명운동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동반연은 문자메시지와 SNS를 통해 개헌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매일 서명자가 1만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주로 교회나 어린이집 경로당 병원 등 단체 단위로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 오륜교회, 인천 검단중앙교회, 경기도 성남 할렐루야교회와 부천 온누리교회, 경북 경산중앙교회 등은 주일 예배 후 서명을 받아 우편으로 서명지를 발송했다. 동반연 사무실에선 서명지를 취합해 지역별로 분류하고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일일이 입력하고 있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국회가 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개헌안에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한다"면서 "만약 동성애와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양성을 기반으로 한 가정과 가족, 사회와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바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격상되면 사실상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때문에 서명으로 적극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양규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전국교수연합' 중앙실행위원도 "서명지는 추후 지역별로 분류해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개헌특별위원장,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서명은 동반연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다. 교회에서 활용 가능한 단체 서명용지도 내려받을 수 있다(hisland.org).

"이 땅 회복은 기독교 신앙밖에 희망 없다"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 위한 전국 대표회장 준비기도회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를 위한 전국지역 대표회장 준비기도회가 28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강남호텔에서 개최됐다.

대성회 준비위원장 함덕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대표대회장인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제9시 기도시간'(행 3:1-1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전국교회의 기도운동을 제안했다.

이 목사는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느 것도 소망이나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서 "결국 이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은 기독교 신앙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교회에 부흥을 가져온 것은 뜨거운 기도 때문이었다. 현재 한국 교회가 침체하고 세상적으로 타락하게 된 이유도 기도의 상실에 있다"면서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가 한국교회 제2부흥의 전기를 마련하는 기도운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명예총재 이태희 목사는 "이번 성회를 준비하면서 한국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이 민족을 복음화하는데 노력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손잡고 합심하여 무너지는 한국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자"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의 성공적 개최와 교회 개혁,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합심기도했다.

이날 모임에는 이강평 윤종남 장향희 표순호 이성택 서석근 유순임 권경환 목사 등이 참석했다.

주최측은 임은태 장로(여의도순복음교회)에게 후원회장 추대패를 전달했다. 대성회는 11월 12일 오후 5시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전국 교회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헌법의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으로 확대

교계 '외국인 기본권 보호 확대 개헌안 문제점' 포럼

헌법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를 논의하는 포럼이 2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기본권 확대가 인권보호 차원에선 반길 일이지만, '국민' 개념을 '사람' 개념으로 바꾸는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무슬림이 대거 유입돼 부작용이 생길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안전한 한국을 위한 개헌 국민회의' 주최로 열린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에 관한 포럼'에서 아세아연합신학대 세계지역연구소 소윤정 교수는 최근 이슬람권 A국 대사관 직원에게 온 전화 한 통을 소개했다. 소 교수는 "한국에 온 이슬람 남성들에겐 매뉴얼이 있다고 한다. 불법 체류가 적발되면 종교나 정치 핍박을 이유로 난민을 신청하고 교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라. 그래도 안 되면 이혼한 한국 여성과 결혼해 비자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한 피해 한국 여성은 "제가 사랑한 이슬람국 출신 남성은 알고 보니 결혼한 남성이었고 오직 한국 국적만 원했다"며 "결혼하자고 한 뒤 나를 '택시'라고 부르면서 농락했다.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외국인 기본권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개헌특위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망명권' 신설을 검토 중이다. 또 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인종'을 추가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명시하려는 개헌안을 제시했다.

고영일(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대표) 변호사는 "외국인에게도 인간으로서 인정되는 기본권, 즉 생명권이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고 말을 시작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과 동일하게 보장할 순 없다. 특히 다문화정책을 취한 유럽의 경우 수많은 무슬림이 유럽사회에 진출했지만 세속법보다 샤리아법(이슬람율법)을 우선시하는 그들은 결코 유럽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테러는 그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과격 무슬림에 대한 사전 입국 차단과 일반적 난민 신청자에 대한 지원은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한국 국민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민'의 4대 의무, 즉 납세·병역·교육·근로 의무를 다해야 헌법상 '국민'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며 "이번 개헌안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음선필 홍익대 교수(법학)는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하거나 현재 거주 중인 외국인은 그 동기와 목적, 정치·종교적 배경, 대한민국(법, 가치체계)으로의 통합 가능성 등이 매우 상이하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본권 확대 여부와 범위를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는 본질적으로는 옳지만, '인권과 국가 간 긴장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우리 사회의 여건과 상황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망명권' 신설과 관련해 이호택 ㈔피난처 대표는 "난민은 우리 사회의 귀한 자산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별다른 검증이나 역사적 맥락도 없이 뜬금없이 헌법 조항에 명문화하는 것은 국제적인 인권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자칫 남용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되레 진정한 난민 인권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국인도 기본적인 인권은 존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개헌논의, 동성애 · 동성혼 합법화에 악용 가능성"

동성애 · 동성혼 개헌포럼, "권력구조에... 정치권 꼼수"

개헌 논의가 동성애·동성혼 합법화의 통로가 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실과 결혼과가정을세우는연구모임 주최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동성애·동성혼 개헌 논의와 한국 헌법'이라는 주제의 학술 포럼이 열렸다. 포럼에는 개신교 신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80석 좌석이 다 차서 20여명은 간이 의자에 앉거나 서 있었다. 한 남성 참석자는 등 뒤에 '동성애 반대'라고 쓰인 종이를 붙이고 있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정부 형태 변경을 한다는 명분의 이번 개헌이 동성애·동성혼 합헌법화(헌법에 합치됨)의 계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며 "(동성애·동성혼 옹호자들이) 인권위를 숙주로 삼아 우회로를 사용해서 동성애·동성혼을 합헌법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안)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인권위의 개헌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개헌안 평등권 조항에서는 성별·종교·신분 외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도 사람을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최 명예교수는 인권위가 헌법기관화되는 상황에 대해 "인권위가 왜 필요하냐. 요즘 사람들이 인권이 침해되면 가만히 있느냐. 경찰이나 검찰에 갈 수도 있다. 인권위의 기능은 중첩적이다. 나쁘게 말하면 정부 돈 받아서 시민단체 역할을 하는 게 인권위"라고 했다. 참석자 몇 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기현석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개헌에는 고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동성애·동성혼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논의가 없는 상황인데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식으로 헌법이 바뀐다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전반적으로 많은 사항을 다루려다 보면 개별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무시되거나 생략된 채 끼워팔기나 주고받는 식으로 대충 처리될 우려가 있다"며 "개정(改正)이 아니라 개악(改惡)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주제 발표자인 정영화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동성애자는 한국에서 소수자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관심 있을 만한 표가 없다. 그런데도 헌법 개정안에 동성애를 넣은 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동성애·동성혼 이슈에 관심을 집중시켜 권력구조를 바꾸는 이슈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포럼 참석을 위해 울산에서 왔다는 주부 이화영(48)씨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다. 지금 울산 학교들이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에 뒤집혔다. 울산 조례안 중 차별금지 항목에 '성적 지향'이 들어 있다. 상위법에서도 논란이 되는데, 조례안에 성적 지향으로 차별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권 교수는 "울산의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에 반(反)하는 것인데 인권위는 이 문제를 취급하지 않는다. 인권위가 편향적이라는 증거다. 그래서 인권위가 헌법기관화되는 게 문제"라고 답했다.

"졸혼 안돼, 리혼(Re婚) 하자"

크리스천과 졸혼, 의식실태 조사

인기리에 방송 중인 KBS 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에는 남편 차규택(강석우 분)이 아내 오복녀(송옥숙 분)에게 '졸혼'을 선언하고 졸혼 예행연습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선 중년 연기자 백일섭이 결혼생활 40여년 만에 졸혼한 사실을 고백해 화제가 됐다.

요즘 각종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 졸혼이란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적 관심도 뜨겁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졸혼을 검색하면 '졸혼 계약서'를 비롯해 '졸혼 시 유의사항' '졸혼정립 10계명' 등 관련뉴스만 3000개 가까이 뜬다.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의 졸혼은 이혼과는 다르다. 사전적 의미로 법적인 혼인관계는 유지하지만 부부가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개념이다.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가 2004년 출간한 '졸혼을 권함'이란 책에서 처음 사용됐다.

'100세 시대'에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말다툼이나 간섭을 피해 서로 자유롭고 싶을 때가 있다. 황혼 이혼은 부담되고 잠깐 떨어져 숨 쉴 틈이라도 얻을 수 있는 졸혼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인데, 과연 부부들은 행복하게 졸혼할 수 있을까.

크리스천 부부 64% '졸혼 반대'

크리스천 기혼남녀 10명 중 6명은 졸혼이 이혼과 다를 바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만 유지한다고 해서 모든 가정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일보와 하이패밀리가 공동 기획한 '졸혼에 대한 의식실태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달 7~17일 전국 크리스천 기혼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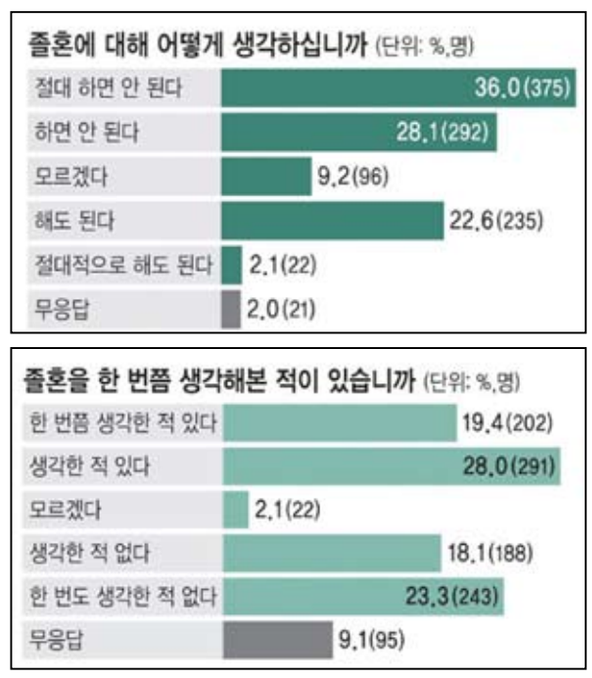
졸혼을 '절대 하면 안 된다'(36.0%) '하면 안 된다'(28.1%)고 응답한 사람이 64.1%였다. 특히 결혼 5~9년차(71.4%)는 20년차 이상(64.3%), 15~19년차(63.5%) 부부들에 비해 졸혼을 강하게 반대했다. 신혼을 보내고 자녀가 생기는 이때가 결혼생활의 황금기란 걸 알 수 있다.

크리스천이 졸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다. '이혼과 다를 바 없어서'(23.3%) '가정이 진짜 깨질 수 있어서'(22.5%) '둘이 하나 되라는 성경말씀에 위배되기 때문'(21.7%)이다. 크리스천의 결혼관은 비교적 건강했다.

그들의 속마음, '졸혼에 솔깃'

그러나 '졸혼을 한 번쯤 생각해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47.4%가 생각해봤다고 했다. 생각한 적 없다는 응답은 41.1%였다.

크리스천들 역시 '혼자이고 싶을 때'(23.9%) '자주 싸우다 지칠 때'(23.6%) '존중받지 못할 때'(15.1%) '말이 통하지 않을 때'(11.6%) 졸혼을 생각했다. 부부간에 소통의 방법으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해 졸혼을 생각해봤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김향숙 하이패밀리 공동대표는 "크리스천들은 결혼에 대해 확고한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지만 실생활로 들어가면 세상적 가치문화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오히려 졸혼을 한 번쯤은 생각해봤다고 응답한 이들의 마음이 실제 모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람들이 졸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선 '배우자의 간섭을 피해 자유롭게 살 것 같아서'(22.9%) '서로에 대해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21.4%) '이혼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아서'(20.9%) 등으로 비슷하게 나왔다. 부부관계가 힘들어 졸혼에 솔깃했다는 속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리(Re)혼' 결혼을 다시 시작하자

오랜 결혼생활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역할 과부하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부부생활에 피로감이 쌓이고 결국 '결혼탈진증상'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졸혼이란 탈출구도 생긴 것이다.

결혼생활도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낡고 오래된 집에 금이 가고 지붕에서 물이 새면 다시 깨끗하게 수리하듯 부부 사이도 재수선이 필요하다. 크리스천들은 졸혼이나 이혼을 '리(Re)혼', 다시 시작하는 결혼생활로 바꿔야 한다. Re혼을 통해 신혼의 즐거움과 행복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성경적 가치를 토대로 한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 훌륭한 아내, 혹은 남편이 되도록 훈련하는 부부 역할 재교육이 아닌 각자의 역할을 벗어나 스스로를 회복시키고 부부간 갈등으로 망가진 마음을 치료하는 부부마음치유나 회복프로그램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김 대표는 "결혼은 느낌표로 시작해 물음표를 거쳐 마침표에 이를 수 있고, 다시 느낌표를 회복할 수도 있다"며 "너무 쉽게 마침표를 찍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부부가 존중의 대화를 나누고, 취미를 함께하는 등 작은 실천을 약속한다면 고통의 물음표는 어느새 행복의 느낌표로 회복될 수 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 19:6) Re혼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자.

선교의 창 (85)

선교사와 지도력(指導力)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일반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가정은 가장 이상이 될 수 없고 교회는 목사 이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를 적용하자면 A라는 선교현장은 그곳 전임 선교사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교사는 리더이다. 리더가 되려면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지도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리더십이 없는 자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공동체는 성장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역도 속된 말로 말아 먹기 쉽다. 뱀의 꼬리가 머리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선교현장을 보면 사역적 성과에 비해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대부분 파생하는 문제들은 그 선교사의 지도력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지도력을 배양해야 한다. 선교적 지도력은 어떠해야 하는가?

지도력이란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능력이다.
선교 지도력은 명령이 아니라 섬김에서 시작된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공로는 지체들에게, 모든 책임은 내가!

1. 지도력에 대한 이해

위키백과사전에 의하면 지도력(leadership)은 "공동의 일을 달성하려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와 도움을 얻는 사회상 영향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오스왈드 샌더스(J. Oswald Sanders)는 "지도력이란 영향력이다(Leadership is influence)"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지도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기독교적 지도력은 어떠한가? 풀러 신학교 교수인 로버트 클린턴(J. Robert Clinton)은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크리스천 지도력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 받은(God-given capacity) 한 지도자가 특정 그룹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한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되는 단어는 하나님의 목적과 영향력이라는 것이다.

2. 지도력의 여러 유형

막스 베버(Max Weber)는 3종류의 지도력을 말했다. 이는 "리더와 관계자들 간의 이해득실을 바탕으로 한 거래적 지도력과 리더의 인간적인 매력에 의존하는 카리스마 지도력 그리고 부하들의 가치와 신념, 욕구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변혁적 지도력"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 기독교적 지도력이 있다. 그것은 섬기는 지도력(servant leadership)이다. 이는 지체들에게 목표를 공유하고 그들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리더와 공동체원의 신뢰를 형성시켜 궁극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리더십이다.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가 지체들을 섬기는 자세로 그들의 성장 및 발전을 돕고 공동체의 목표 달성에 모두가 스스로 기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3. 예수님의 리더

크리스천 지도력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과연 주님은 어떤 리더십이었을까? 첫째로 주님은 목적이 분명한 리더십이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요6:38) 행하는 것이었다. 목적이 불분명하면 방황하게 된다. 둘째로 주님은 섬김의 리더십이었다. 마가복음은 섬기려 오시는 예수를 강조한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섬기시는 본을 보여주었다(요13:14-15). 셋째로 주님은 사랑의 리더십이었다. 예수는 체포되기 전 마지막 설교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 십자가 사건은 사랑의 최고 표증이다. 넷째로 주님은 원칙의 리더십이었다. 예수는 진리를 위해서는 한 치의 타협도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악의 무리를 향해 서는 날을 세우고 단호하게 물리치셨다. 성전 정화(마21:12-17)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꾸중하시는 모습이 대표적이다(마23:27).

4. 바람직한 지도력 구조

풀러(Fuller) 신학교 이상훈 교수가 언급한 오리 브래프만(Ori Brafman)과 로드 벡스트롬(Rod A. Beckstrom)의 이론이 재미있다. 저들은 성공적 비즈니스 체제를 구축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불가사리와 거미 구조를 통해 설명한다.

거미는 머리가 밟히거나 잘리는 순간 그 생명은 끝이 난다. 즉, 강력한 카리스마 형 리더를 가진 조직일수록 한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결국 그 리더에 따라 조직의 운명은 결정된다. 그러나 불가사리의 경우는 이와는 대조적 모습을 가진다. 머리가 없는 불가사리는 다리가 잘려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잘린 다리가 분화하고 성장하여 새로운 개체의 불가사리로 성장한다. 이처럼 불가사리 조직은 분권화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체계가 느슨할 뿐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가 추종자이며 동시에 지도자가 되는 조직적 특성을 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초대교회는 불가사리와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가졌다. 그 교회들은 유능한 지도자 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가정 단위에 기초했으며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속적인 재생산을 이루어냈다.

5. 선교사의 지도력

선교사에게서 지도력은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 킹덤에 초점을 맞추는 지도력이어야 한다. 선교사는 시대에 편승한 문화적 상품과 브랜드로 자기 왕국을 만들어가기 쉽다.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통해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적 분별력으로 늘 심령을 가난하게 하며 사역의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둘째, 일꾼을 세우는 사람 중심의 지도력이어야 한다. 영혼들이 들러리가 된 프로젝트형 사역은 공허할 뿐이다. 선교사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공유하며 공동체의 지체들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위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서번트 지도력이어야 한다. 칼이나 지휘봉이 아닌 수건을 드는 종의 리더십이다. 사람들은 들음 보다 보는 것으로 더 큰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들려주는 복음과 함께 예수님처럼 롤 모델(Role Model)로서 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도력이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선교사는 권위와 힘을 빼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초대교회의 교부 아테나고라스(Athenagoras)는 성령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며, 그리스도는 과거의 인물에 지나지 않고, 복음은 죽은 편지이며, 교회는 단순히 조직에 불과하고, 권위는 힘을 사용하는 수단이며, 선교는 선전기계이고, 예배는 구시대적인 유물인 동시에 도덕은 종들의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

맺음 말

그간 우리 교회와 선교현장은 성직자 중심의 사역구조를 유지해왔다. 지나간 역사 동안 크리스텐돔 시대를 구현하면서 세상의 중심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중심에 성직자가 있어왔다. 전통적인 이 사역구조와 패러다임은 오늘날도 여전히 변치 않고 있다. 이러한 사역 구조는 위에서 언급한바 불가사리 구조가 아니라 거미 구조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기독교는 군대식의 계급 구조가 아니다. 1인 중심의 제왕적 체제는 성경적이지도 않으며 대단히 위험하다. 이제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의 요구와 개성도 강해지고 있다. 선교사는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든 지체들이 선교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선교는 본질적으로 급진적이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회복을 위해 자신과 공동체가 비전을 따라 고유의 사역을 창안하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공로는 지체들에게, 모든 책임은 내가! 이 정신이 선교사의 지도력 근간이 되어야 한다.

song007@hanmail.net

선교 편지 — 헝가리 부다페스트

Dear, 기도와 주님사랑으로, 또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 선교후원 해주신 분들께!

안녕하십니까? 건강하며 평안하신지요!

누구나 평생 미션은, 바로 자녀인 것 같습니다. 기도와 보살핌, 격려와 충고, 사랑, 헌신, 기다림...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헝가리 아이들도 차마 저희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4:15-16).

기도와 주님사랑으로, 또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 선교후원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기거하며 돕던 산도르가 건강상 지난 6월말 나갔고, 주일예배만 나오고 있습니다.

2)저희 헝가리인 성도들이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급식사역도 서빙하는 섬김이들은 여럿 있지만, 요리 등 준비하는 과정을 도울 자를 보내주옵소서.

3)"쇼& 빌라고샤고(소금과 빛)개혁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거리의 교회"를 통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며, 새 삶 살게 하소서!

"집시가정교회"와 "어린이 주일학교"를 통해, 그들이 장차 집시사회를 변화시키는 자들 되게 하소서!

그 헌금의 미션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셨으니, "주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되겠습니다. 아래 사진 설명과 함께, 소식과 기도제목을 드리겠습니다.

1. 소식(왼쪽 사진부터)

1)저희 둘째 아들, 엘리야가 목사안수를 받고, 미군 군목으로 한 대대(720여 명)를 섬기고 있습니다.

2)최근 저희 부부/집시 어린이 브리기와 르카도르(자폐증) 남매의 성장(향상)을 성도들 앞에서 격려!

3)피테르와 임례 전도사가 예배를, 클라라와 주저, 아틸라, 선디가 급식사역을 함께 섬깁니다.

4)고아원의 십대 청소년들을 교회 데려와, 성경말씀을 재현해 보고, 또 건전한 놀이도 하였습니다.

2. 기도제목

1)김흥근 선교사가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콧등의 대상포진이 속히 낫게 하옵소서!

5)저희 자녀들(디모데 가족과 엘리야 가족)의 생명, 건강,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헝가리 아이들도 차마 저희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4:15-16).

감사, 감사, 감사드리며,

May God bless you!

헝가리 흥부선교사

김흥근& 서명희 드림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승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Fax.(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아, 유치 유년예배: 오전 10:45
중,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Fax.(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702)749-9929, Fax.(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사택.(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703)941-4447, Fax.(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ijkc.org
Tel.(804)560-7500, Fax.(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cr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Fax.(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선교사 메시지 / 제72주년 광복절 연합예배 설교

자유와 해방

(누가복음 4장 18-19절)

강성철 선교사 (브라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걱정과 근심으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근래에 교포사회에 집회와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를 모시고 순복음교회에서 가진 부흥성회, 작은 씨앗교회가 성전을 마련하고 드린 입당감사예배. 올해도 기독교연합회가 마련한 어버이 효도잔치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라는 찬송가가 생각나면서 어려우니까 교포들이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집회와 모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 볼 때 참 좋은 현상입니다.

어떤 목회자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일명 가나안 교인)"는 사람이 만 명이 넘는다" 합니다. 이때 목회자의 사명이 크다고 봅니다. 교회부흥의 조짐이 일어 날 때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온 교회가 일어나 전도에 힘써야 할 때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 72주년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왜 우리 민족이 36년간 일제의 탄압을 받으며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는가? 한마디로 약했기 때문입니다.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도 말도 못하고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집과 땅을 빼앗겼고 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하고,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아들 딸도 강제로 징집되고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앗아가므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잃었습니다.

물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907년 고종 밀사로 이준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으나 강대국 일본과 영국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제국 고종 독살 소문을 계기로 남녀노소 전국각지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33인이 마련한 독립선언서를 선포하고 한일병합조약 무효를 외치며 비폭력 만세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더 큰 시련과 고통 속에 희생을 당하고 혹독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 땅 위에 독립될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동포들 중에는 일본을 흠모하고 일본인이 되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그 앞에 충성하였고 일본을 위하여 몸과 정신까지 바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1938년에는 일본 형사의 총 칼 앞에 평양, 평서, 안주노회가 신사참배 헌의안을 총회를 제출하고 9월 10일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때 배위량, 한부선 선교사가 이 결의는 일본의 강압에 의한 불법 결의라고 항의했으나 그들은 일본 형사대에 의해 축출 당했습니다.

한국교회사의 범죄는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무시하고 서울은 한강에서, 부산은 송도 앞바다에서 일본 천조대신(아마데우스 오미가미) 이름으로 세례(미소가바라이)를 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권력에 아부하는 종교모리배들이 일본경찰과 합세하여 일본 신을 숭배케 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환난과 핍박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기를 촉구하며 옥에 갇히고 순교한 많은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연합군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폭정을 펼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신앙의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했기 때문에 약소국가로 일본의 탄압과 지배를 36년간 받았습니다.

2. 1945년 8월 15일에 이룬 해방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1986년 8월 14일 동아일보 시론에 서울대 정치학 교수 이정복씨는 "독립과 자유의 참 뜻"이란 제목 하에 "독립과 자유를 되찾았다고 환희에 차있던 8.15의 감격을 오늘날 우리는 느낄 수 없다. 그러한 감격을 느끼기에는 우리의 독립과 자유를 억압하는 객관적인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해 있기 때문이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강원용 목사는 그가 쓴 "빈들"이란 책자에 "내가 살아온 한국의 70년은 계속 빈들이라. 이 빈들은 성서에 나오듯 '돌로 떡을 만들라'는 물질 만능, 경제제일주의, '악마에게 절하라' 절하고라도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권력 숭배사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비합리적이요 광신적인 기복종교에 의해 지배되는 공간이었다"(마4:1-13)고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 차례 역사의 전환도 시도했으나 여전히 악의 영(물질만능, 권력숭배, 광신적 종교)의 세력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한국은 지금 위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고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으며 모두 얽매여 있고 눌려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람에게 양심을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한 후 그 성품이 부패하여지고 여러 가지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본래 받은 자유와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심령의 자유를 아주 잃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방면에서 인생이 얽매여 있습니다. 오늘 세계정세를 보세요, 악한 독재자의 정치 하에 노예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가진 자들의 횡포와 갑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며 신음하고 있는가? 사회적 제도 속에서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상실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실업, 난민, 가난, 병속에 신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누가 이들을 억압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줄 것인가?

그 해답은 성경에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 61장 1절에 예고하였고 누가복음 4장 18-19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림 받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로잡힌 자와 눌린 자를 해방해서 그 얽매인 쇠사슬을 풀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해방은 모든 자유의 근본이 되시는 자유입니다. 사람의 심령 속에 그 심령을 얽매는 모든 죄악의 쇠사슬을 풀어서 심령 속에 자유를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은 삭개오와 마태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반면에 네로 황제에게는 그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방대했던 로마제국의 모든 정권과 백만 대군을 한 손에 잡고 있는 그였지만 네로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그는 얽매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악에 얽매여 있었고 악한 성품의 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에 늘 눌려 있으므로 마침내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일본과 미국을 자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김정은도 따지고 보면 종입니다. 악한 성품에 매여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성경은 답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분명히 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72주년 광복해방주일을 지키면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화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으로 하여금 부자연스럽게 하는 죄악의 형상을 깨드리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주십니다. 오직 십자가로 심령의 죄와 사망의 올무를 끊으시고 세상 그 무엇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 난민의 문제, 가난의 문제, 병의 문제, 억압된 인권의 문제, 폭정 속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의 해방은 오직 예수만이 해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

kangsungchuel@gmail.com
kangsungchuel@gmail.com

〈8면에서 계속〉

창조주는 무한하지만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는 인생경험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처럼 내일과 미래, 기대와 소망을 품는 한계가 바로 비전인 것이다. 비전을 이루는 비저너리들은 비전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한다. 인생의 모든 일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어떤 야구 선수가 월드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안타를 쳤다. 이 선수가 너무 흥분해서 1루로 뛰어 간다는 게 3루 쪽으로 뛰어가다가 아웃이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야구 선수가 평생 처음으로 만루 홈런을 쳤다. 너무 흥분해서 홈에 들어 올 때에 홈을 밟지 않았다. 상대팀에서 항의하는 바람에 아웃이 되어 3루타로만 인정받고 홈런은 취소되었다. 사람이 너무 흥분하면 목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죽도록 애쓰고도 엉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세상에 힘들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남녀노소 누구나 모두 다 힘들다. 그러나 제아무리 힘들다 해도 정신을 차리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비전은 마침내 현실이 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 매사에 의욕이 없고 우울증으로 자신감을 잃었는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은 세상의 제일 비참한 곳에서 환경을 극복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눈물과 더불어 빵을 먹어 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다운 맛을 모른다.

당신은 지금 광야에서 목표를 상실했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의논하던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배신하고 떠났는가?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 광야는 죽음의 땅이 아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분명한 사람에게 광야는 새로운 비전의 땅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이다. 빛을 발하여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라!

sondongwon@gmail.com

〈2면에서 계속〉

"어떤 부분을 어디서부터 바꾸어 나가야 할지 그 지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번 연구를 시작한 가장 큰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안우파가 실제로 다른 사람을 인간 취급도 안 한다는 점이 큰 문제로 드러나면, 그럼 해결의 실마리도 거기서부터 찾아야 하겠죠. 같은 인간을 우열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거나 그런 생각이 굳어지기 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실천 과제가 나올 테니까요."

연구진은 이 밖에도 몇 가지 직접적인 교훈을 얻었다.

"흑인에 대한 편견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것과 공격적인 행위를 실제로 더 많이 하는 것 사이에 상관관계가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편견을 드러내고 싶은 유인을 차단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공격적인 행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결론으로, 이번 연구는 이제 첫걸음을 뗀 데 불과하다. 포슈너 교수는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의 행동과 인식 변화를 앞으로 두고두고 추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드시 이들을 추적하며 데이터를 축적하지는 못하더라도 대안우파의 세계관을 지탱하는 구체적인 신념과 몇 가지 원리를 찾을 수 있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연구일 거라고 포슈너 교수는 말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저 사람들이 어떻다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부족하더라도 객관적인 근거를 모아 그를 토대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연구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겁니다. 동시에 앞으로 해야 할 수많은 과제를 던져준다는 데도 이번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323-665-0009(LA)(판매)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40)

8.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 교육을 위한 성경적 통합 교육 이야기 (1)
(Biblical Integration and Education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한인교회 교육을 위한 성경적 통합 교육 이야기(Biblical Integration and Education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야기는 한인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적 실천들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지난번 이야기에서는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그리고 한인 기독교교육에 의한 비평적 사회학적 관여(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에 대해, 즉 한인교회 교육의 사회적, 공동체적 사명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했었다면, 이번 이야기에서는 한인교회의 공동체내적 교육 사명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야기 논의의 범위를 교회 공동체로 제한하고 보다 심층적으로 교회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일이, 우리 한인교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이미 찾아왔으며,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특히 "성경적 통합(Biblical Integration)" 개념을 공유하고, 이를 적용한 교회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일에 모든 교회 교육자들과 일선의 사역자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외적으로 볼 때, 한인교회교육의 위기는 우리 한인 다음세대들(1.5세와 2세 모두)이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체적인 절대 수의 감소와, 고등학교 이후를 기점으로 조용히 교회를 떠나가는 수의 증가로 회자되어왔습니다. 1세 어른들의 교회출석도, 또한 전체 한인 대비 교회출석 인구수도 정말 빠르게 줄어왔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한인교회의 다음세대는 절대적으로도 그 수가 현저히 줄었고, 1세대 어른들과의 비율에서도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대형교회의 경우, 잘 계획되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교육 프로그램들(EM사역을 포함하여)과 이를 이끌고 뒷받침할 풍성한 인적, 물적 자원들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그래서인지 수평이동이 많습니다!), 위와 같은 위기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교회들도 더러 있을지 모르지만, 한인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형 규모의 한인교회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매 주일 현실적으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잘 계획되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교육 프로그램들도 부족하며,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니 프로그램의 성격도 빠르게 세태 전환을 하여 교육적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어야 할 때가 많을 텐데도, 이를 주도하고 이끌어 갈 사역자를 모시기도 어렵고, 그런 사역자를 모셔오기 위한 그리고 그 사역자가 마음껏 열정적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제반 자원들을 보장해 드리는 일 역시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고교 이후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는 2세들, 1.5세들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엄두도 못 내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사역자들은 "우리 교회교육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줄고 혹은 부흥이 안 되는 걸까?"라며, 고민해왔습니다. 때로는 낙담하고 또 때로는 그려러니 하고 어느 정도 포기하고 또 때로는 현실을 직시한다면서 빠르게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모습, 위기라 일컬어져 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진정으로 올바른 한인교회교육의 위기진단일까요? 물론 절대적인 수적감소는 분명하지만, 어찌보면 잘 모이는 교회는 더 잘 모이고 그 교육이 활발하고 아이들도 많고, 교인수가 감소하거나 아직 소수인 교회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고 아이들도 적고 덜 활기차게 느껴지는, 늘 있어왔던 이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세대들의 소위 "조용한 탈출(Silent Exodus)"도 EM사역과 맞물려서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이야기를 위한 전제는 숫자의 감소가, 양적 성장이 없거나 더딘 것 차제를 한인교회교육의 위기라고 하기보다는, 상황을 인지하여 분석하고, 수적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를 회복한다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현재의 교육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이끌어 나가는 길을 찾고 세우는 이와 같은 일들을 잘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인교회교육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려는 이야기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다음세대의 양적 성장이나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한인교회교육이 위기다 아니다 판단할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세대들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나타내고, 학교에서도 그 후의 사회생활에서도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주의 자녀로 주의 일꾼으로 길러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한인교회교육의 위기다 아니다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이 새로운 이야기는 양적 성장 혹은 아이들의 출석수자라는 것을 교육적 성패의 잣대로 삼는 것을 내려놓을 때,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인생을 진지하고 깊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오히려 건강하고 바람직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이 다시 출발될 수 있음을, 그리고 그래야 함을 말하고자 합니다. 만일 한인교회교육(한국의 교회교육도 공히)이 현재 위기를 맞이했다고 느끼고 있다면, 양적인 부분이 위기인 것이 아니라 양적인 부분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애쓰다 놓치고 있는 혹은 외면되어온 질적인 부분이 실상 위기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함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한인교회교육은 지금 양적 성장의 측면에 매여 고민할 때가 아니라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교육해야 할 때임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옳은 일임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자녀들의 삶이 질적으로 변화되어 성경적 세계관을 입각한 그리스도를 닮은 어딜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거의 목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적 성장에 매여 고민 말고 질적 성장에 초점 두고 교육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 끼치는 주의 자녀, 일꾼으로 양육

물론 아이들의 숫자나 양적 성장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교육이 양적인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는 꿈을 가집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듯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고 그들을 교육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이들을 끌어 모으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물론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는 교회교육의 결과가 되는 것이지, 교육의 목표 그 자체가 되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양적인 부흥 자체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교육의 목표가 될 수조차 없습니다). 이를 앞세우게 되면, 교회교육은 알맹이가 없고 따라서 힘이 없는 교육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적인 엔터테이닝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특히나 양적인 부흥에 반짝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속성에 한계가 있을 뿐 더러, 그렇게 부흥된 많은 아이들을 진정한 주의 제자로 길러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에 이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교육에 있어서의 "성경적 통합교육"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사회적 권세의 이해(롬13:1-3)찬23장

사도는 신앙생활을 이웃관계까지 포함시킵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이 기대하신 경륜이었습니다. 이웃관계가 발전해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까지도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것이란 뜻입니다. 사회구조에 관해 본문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세상의 권세-각 사람에게 있는 권세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연장입니다(1). 주님에 대한 복종이 사회의 권위에 대한 복종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권세의 출처-모든 권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니 두려운 일입니다. 청교도들은 세상 모든 일을 성직으로 생각하고 그 나라를 세우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림자 형태지만 하나님나라의 질서를 보여주심으로서 주께로 돌이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화 그리스도인의 국가관(롬1:4-7)찬502장

사도는 계속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것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첫째, 국가관원은 무엇인가요? 사도는 사회적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한 국가의 모든 권위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규정합니다(4). 왕에서 말단 공무원까지 하나님이 준 권위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책임이 따릅니다. 둘째, 권위를 세운 까닭-악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온갖 악이 신속히 퍼지는 것을 제제해 이 땅에 하나님나라를 세우는데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은 이것을 이해함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사회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악을 제제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자상한 질서를 바라보고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갑시다.

수 사랑의 빚을 지라(롬13:8)찬337장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와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침내 사랑의 삶에 이르러야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다시 모든 생활의 원점인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첫째, 사랑의 빚만을 지라고 하셨습니다. 특권을 가지면 의무와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으로 마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이는 사랑의 부채의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먼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각을 가질 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 생겨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이 우리의 사랑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갚을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함으로서 갚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함으로 나타납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갑시다.

목 율법의 완성(롬1:9-10)찬220장

사도는 복음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설명합니다. 마23:23(의,인,신)과 눅11:42(정의와 사랑)에 나온 율법의 기초는 하나님 성품의 표현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킵니다. 즉 율법은 생활의 모든 방면에 하나님 성품의 표현이란 것입니다. 첫째, 의가 세워져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옳은 것은 하나님의 의 곧 성경뿐입니다. 성경화한 삶만이 하나님의 의를 알고 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딤후:16-7). 둘째, 인으로 충만해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지배하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의는 긍휼을 부르고 긍휼은 의와 입맞춤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옵니다. 셋째, 신이 기초입니다. 앞선 의와 인은 모두 신 위에 서야합니다. 진실 없는 의와 인은 가짜입니다 이 세 요소가 율법의 완성, 사랑의 주축을 이룹니다.

금 완성될 구원(롬13:11)찬521장

또 다시 사도는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자화상을 그려줍니다. 그 완성의 때가 지금 곧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요구합니다. 첫째, 구원이 완성된 때입니다. 구약시대부터 계속 그림자 곧 상징주의와 모형주의로 말하던 것이 실체로 나타난 때란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불연속성의 시대란 것입니다. 둘째, 깨어날 시기입니다. 이 큰 구원의 날은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때입니다 누구든지 이 때를 놓치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날로 새로움을 사모해야하며 교회는 부흥을 갈구하고 온 창조물을 향해 복음을 적용해야합니다(막16:15). 세속에 빠지기 쉬운 이 시대에 사도의 외침(본문)에 주목합시다.

토 빛의 갑옷(롬13:12-14)찬502장

사도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인의 삶인 것을 암시합니다. 자기를 잘 지키는 사람이 사역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잘 지킬까요? 첫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써야합니다. 빛의 갑옷이란 비유는 신자의 삶이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충만한 것을 가리킵니다(엡5:9). 이것을 성령충만, 말씀풍성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옷으로 비유함은 주님이 마련하신 은혜를 취해 입는 수고를 요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닮는 일을 힘써야합니다. 여기 방탕, 술취함, 호색, 다툼, 시기는 모든 죄의 특징입니다. 두드러진 죄를 경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곧,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에 몰두하고 성령의 사역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나가야할 자입니다.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02)525-7767, HP.(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도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밤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82)2-490-7000, Fax.(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031)977-8383~9, Fax.(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신시 수지국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82)2-998-9988, Fax.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82)2-2643-8553~4, Fax.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82)32-568-0191, Fax.(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37 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031)253-1004, Fax.(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7:30
주일2부예배: 오전9:30
주일3부예배: 오전11:00
주일4부예배: 오후12:50
주일찬양예배: 오후3:00
새벽기도회: 오전5:00/6:00
Tel:(02)418-0481 Fax:(02)422-0751
서울시 송파구백제고분로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3142-6080, Fax.(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hinchon.org

안암 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82)2-926-4508
서울시 동대문구 악령시로3길 50-1
www.anamje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055)210-5500, Fax.(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 415
www.yangko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02)942-6881, Fax.(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482-3536, Fax.(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043)275-9191, Fax.(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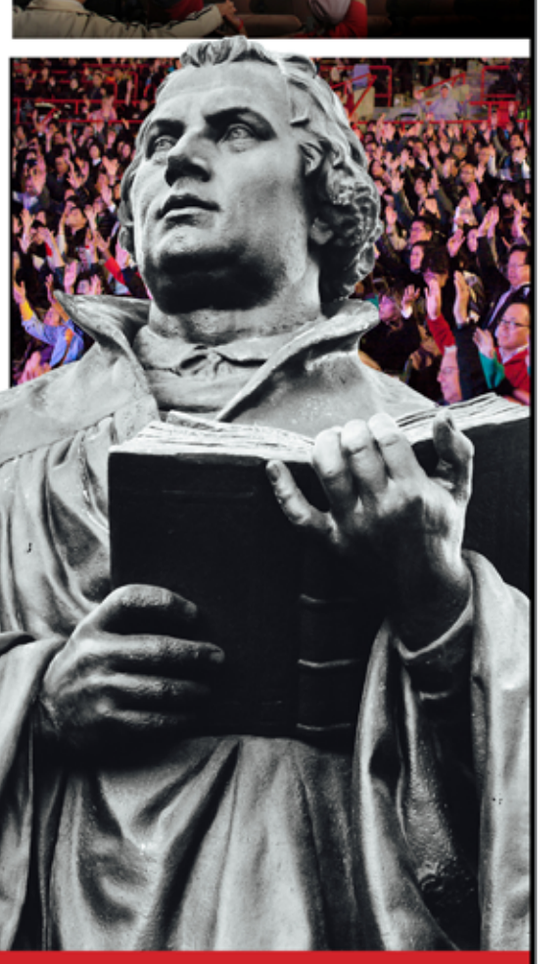
역대하 7:14

종교개혁 500주년기념대회 & 2017 다민족연합기도대회

BACK TO THE BIBLE 회개, 성결, 선교

일시: 2017년 10월 29일(주일)
오후 5:00-8:00

장소: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St., Fullerton, CA 92833 / 714.446.6200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 입니다.
500년전 마틴루터가 당시 성경을 떠난 카톨릭을 향해 개혁의 봉화를 들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평신도들 손에 들려줌으로 종교개혁의 불길을 전유럽에 번지게 했습니다.

"BACK TO THE BIBLE"을 주제로 성경읽기 운동과 회개와 무너진 성경적 가치관 회복운동을 전개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이 다시한번 강력한 대 부흥을 체험하고 거룩성과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함으로 전세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 손잡고 간구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 영광된 은혜의 자리에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연락처: 준비위원장: 310) 995-3936 사무총장: 213) 507-3875

주관: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회
주최:남가주교회협의회, OC교회협의회, 사우스베이목사회, 인랜드교회협의회, 중부교회협의회, 남가주목사회, OC목사회, 남가주여성목사회, OC여성목사회, 남가주장로협의회, OC장로협의회, OC평신도연합회, 미주성시화운동, CMF, 미스바기도운동, SOON Movement, HYM, JAMA
후원:크리스천헤럴드, 크리스천위클리,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비전, 크리스찬투데이, 기독일보, 국민일보, CGNTV, CTS, 미주복음방송, CBS기독교FM방송, 미주기독교방송, 우리복음방송

대표대회장: 한기홍 목사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 공동준비위원장: 이호우 목사, 윤목 목사
사무총장: 김경일 목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성경적 가치관 회복 세미나

Back to the Bible Campaign: 회개, 성결, 선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에서는 무너진 성경의 가르침과 가치관 회복운동을 전개하며, 아래와 같이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하고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을 초대합니다.

LA 지역
2017년 9월 7일(목)
9 AM - 12 PM (점심식사 제공)
로텍스 호텔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OC 지역
2017년 9월 8일(금)
9 AM - 12 PM (점심식사 제공)
은혜한인교회 웨딩홀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세미나 1: **"왜! 낙태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강사: Allan Parker 변호사
The Justice Foundation 설립자 및 대표
텍사스 주 세인트 메리 대학 법학 교수
연방 대법원의 낙태법 폐지를 위한 백만 서명 운동,
The Moral Outcry의 리더

세미나 2: **"우리 교회부터 성경 속으로…,"**
강사: 주해홍 목사
에스라 성경통독 사역원 대표
ANC 온누리 교회 사역 목사
"90일 통큰 통독(도서출판 에스라)" 저자,
"90일 성경일독" 세미나 인도자

세미나 3: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
강사: 정한나 사모
남가주광염교회 정우성 목사의 아내
꿈땅 대표
6 남매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훈련한 엄마
성경적 세계관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

주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대표대회장: 한기홍 목사 |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 | 공동준비위원장: 이호우 목사, 윤목 목사 | 사무총장: 김경일 목사

문의 (310) 995-3936 | (213) 507-3875